

# GCF

## 인천 송도 유치

‘초록별’ 지구의 중심에  
인천이 있습니다



### 녹색기후기금(GCF)은?

- 총 8,000억달러(904조원)의 기금 조성
- 국제통화기금(IMF) 규모의 녹색은행
- 초기 500명, 향후 8,000명 이상 국제기구 직원 근무
- 첫 대규모 국제기구 유치로 국가위상 격상
- 인천의 브랜드가치 급상승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2 11





06 GCF 인천 유치 / 우리가 해냈다  
‘초록별’ 지구의 큰 울림, GCF는 인천

인천이 지난달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제2차 이사회 투표에서 강력한 후보 독일 본을 꺾고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인천은 이날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한 쾌거를 이뤄냈다. 이제 인천은 초록별 지구의 환경을 푸르게 지켜내는 수호천사가 된다.

14 Incheon Life / 게스트하우스  
골목집에 묵으며 ‘인정(人情)’을 나누다

호텔보다 게스트하우스, 인천의 오래된 한옥, 일본인들이 게스트하우스로 변신, 외국배낭객은 물론 국내여행자들의 쉼터로 새로운 문화체험의 장소가 되고 있다.

20 가을 특집 / 문학관 기행  
가을, 문학이 가슴에 스미다

시린 하늘 수더분한 땅 빛. 문학이 가슴에 스미는 계절이다. 인천에는 강화문학관과 육필문학관, 두 곳의 문학관이 있다. 문향(文香) 머무는 그곳에서, 가만히 문인의 가슴을 그려본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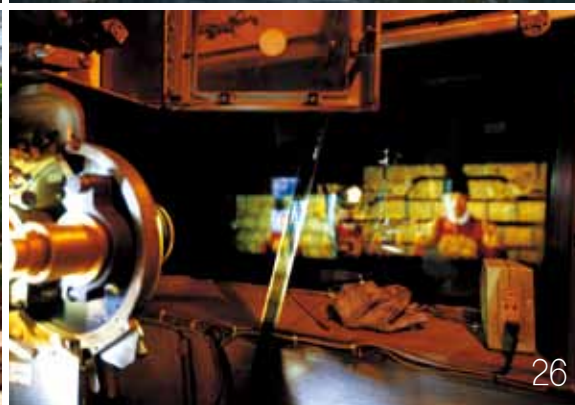
20



14



10



26

# Contents

04 **Communication** ‘굿모닝 인천’으로 인천인들이’ 外

06 **GCF** 우리가 해냈다

08 **인천**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10 **유치** 유치의미

14 **Incheon Life** 게스트하우스

20 **가을 특집** 문학관 기행

26 **인천 씨네마** 애관극장

30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강화 우리옥

34 **Culture News** ‘커피콘서트IX’ 外

38 **아름다운 사람** 폐현수막으로 구두 만드는, 디자이너 최환

40 **Civic News** ‘인천세계장래대회 개최’ 外

44 **Council News**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 外

46 **Info box** ‘고등야간학교,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外

52 **이달의 서평** ‘천 번을 흔들어야 어른이 된다’ 外

53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54 **건강칼럼** 안구 건조증

55 **인천사는 이야기** ‘시원합니다’ 外

56 **전국체육대회** 이제, ‘Incheon’이다

58 **모닝커피 한잔** 원기범 경인방송 아나운서

59 **인천풍경 플러스** 책빵, 미안해요



## Cover Story

‘시몬, 너는 좋으나 낙엽 밟는 소리가...’  
(구르몽 제) 쌓인 낙엽을 보노라니 사각사각 소리를 들으며 낙엽을 밟고 싶다. 제한을 다해 입을 틈었던 나뭇잎이 여름엔 시원함, 가을엔 단풍의 즐거움을 주더니 결국 소명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의 이치는 언제나 경이롭다.

중앙공원 · 사진 김성환

# 굿모닝 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27 / 2012. 11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1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자유사진가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 · 안영우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광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http://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 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태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사진 더 보기 기능은 태블릿 PC에서만 가능)

##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굿모닝 인천〉으로 인천나들이

우연히 〈굿모닝 인천〉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구독을 신청합니다.  
자식을 대신해 손자 손녀를 보느라 바깥 외출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굿모닝 인천〉을 보면서 인천 곳곳을 구경하고 싶네요. 또 나중에  
예쁜 손주들이 크면 책 속에서 본 인천의 명소들을 함께 찾아가고도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_ 정영자 남구 학익2동

### 나의 삶과 〈굿모닝 인천〉

〈굿모닝 인천〉을 벗어나면서 나의 가슴 한가운데 책을 통해 배우고 익  
힌 것가지 삶의 과정이 가득차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를 모처럼  
방문하였다가 그토록 멋진 풍경에 놀랐던 것도 〈굿모닝 인천〉이 이  
끌어 준 결과였습니다. 〈굿모닝 인천〉을 가까이 두고 살다보니 삶에  
행복과 즐거움이 파고듭니다.

\_ 박명선 서구 석남1동

### 내 고향 ‘인천’이 자랑스러워

인천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내  
고향 인천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  
고 대기업 투자가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도시. 그러면서도 항만과  
포구 등 고유한 정치를 간직한 정감 있는 도시. 인천이 내 고향이여  
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굿모닝인천〉을 통해 반가운 소식 많  
이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_ 정희경 서울시 성북구

### 녹색도시 인천에 지구의 미래가

지난달 20일 굿마켓 참가자로 선정되어 송도센트럴파크에 갔습니  
다. 약간 흐린 날씨였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도  
시에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인천 송도  
에 GCF 사무국이 유치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장에 있  
던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세계의  
막강한 도시들과 경쟁했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 인천이 GCF 사무  
국을 유치하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_ 이현아 서울시 강남구

### 오라, 매력 넘치는 송도국제도시로

〈굿모닝 인천〉을 보며 활력 넘치는 송도국제도시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도 많고 현대적인 빌딩도 즐비한 인천 송  
도로 가 이국적인 정취를 즐겨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새로움  
을 전할 수 있겠지요? 계속 좋은 기사로 독자에게 즐거움을 전해주  
세요. 벌써부터 다음 호가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_ 정현숙 논산시 대교동

### GCF가 선택한 도시, 인천!

〈굿모닝 인천〉 10월호를 통해 인천의 GCF 사무국 유치 열기를 느  
낄 수 있었습니다. GCF 사무국을 유치할 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적인 효과, 인천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영향력 확대 등  
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반드시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11월호  
에서 반가운 소식을 접하기 기대합니다. 인천 파이팅!

\_ 이규호 계양구 작전1동

### 친환경 녹색도시의 롤모델

이번 호에서 ‘친환경 녹색도시 롤모델 되다’ 기사가 좋았습니다. 송  
도국제도시가 GCF 사무국 유치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 근처 하천을 지났는 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식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 물을 마시고 수영하며 놀았다는 사실이 믿기  
지 않더군요. 송도가 친환경 도시의 롤모델이 되어 깨끗하고 맑은  
세상 만들기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_ 송국화 전북 순창군



#### 편집자의 말

#### GCF 사무국 인천 유치, 290만 시민 덕분입니다

290만 인천시민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인천에 GCF 사  
무국이 유치되기를 염원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인천이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은 앞  
으로도 29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중심으로  
힘차게 비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영종도에 사는 시민입니다. 제3연육교 계획되로 건  
설하는지 궁금합니다.

제3연육교 관련 청라·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 등과 T/F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 제3연육교 건설을 위한 손실보  
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ulloger** 요즘 가정오거리 주변에 도로공사 때문에 트럭이  
오고가는 데, 먼지를 날리지 않기 위해 바닥에 뿌리는 물로 오  
히려 통행이 불편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주민불편사항  
을 해소하고자 1사1도로 클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물청소 과정에서 도로가 흥건해지는 민원사항을 감안해 해당사업장  
에 도로청소를 시정토록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 시 서구청 환경보전과(560-5920) 또는 국번 없  
이 128번으로 전화주시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ulloger** 인천공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  
스가 너무 줄어 인천공항 근무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논현, 만수지구에서 인천공항방면으로 이동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303번 노선을 나눠 303-1번으로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노  
선을 송도 해양경찰청 및 이안아파트 앞 정류장을 통과하도록 하여  
송도지역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나, 차량부족 및 고속  
도로 입석금지 문제로 불편이 큼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출퇴  
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 름** 배상근(당시 만 38세, 남)  
**발생일자** 2006년 7월 20일  
**발생장소** 남구 주안3동  
**신체특징** 169cm, 65kg, 정신장애, 둥근얼굴형  
**제 보 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초록별’ 지구의 큰 울림,

GCF는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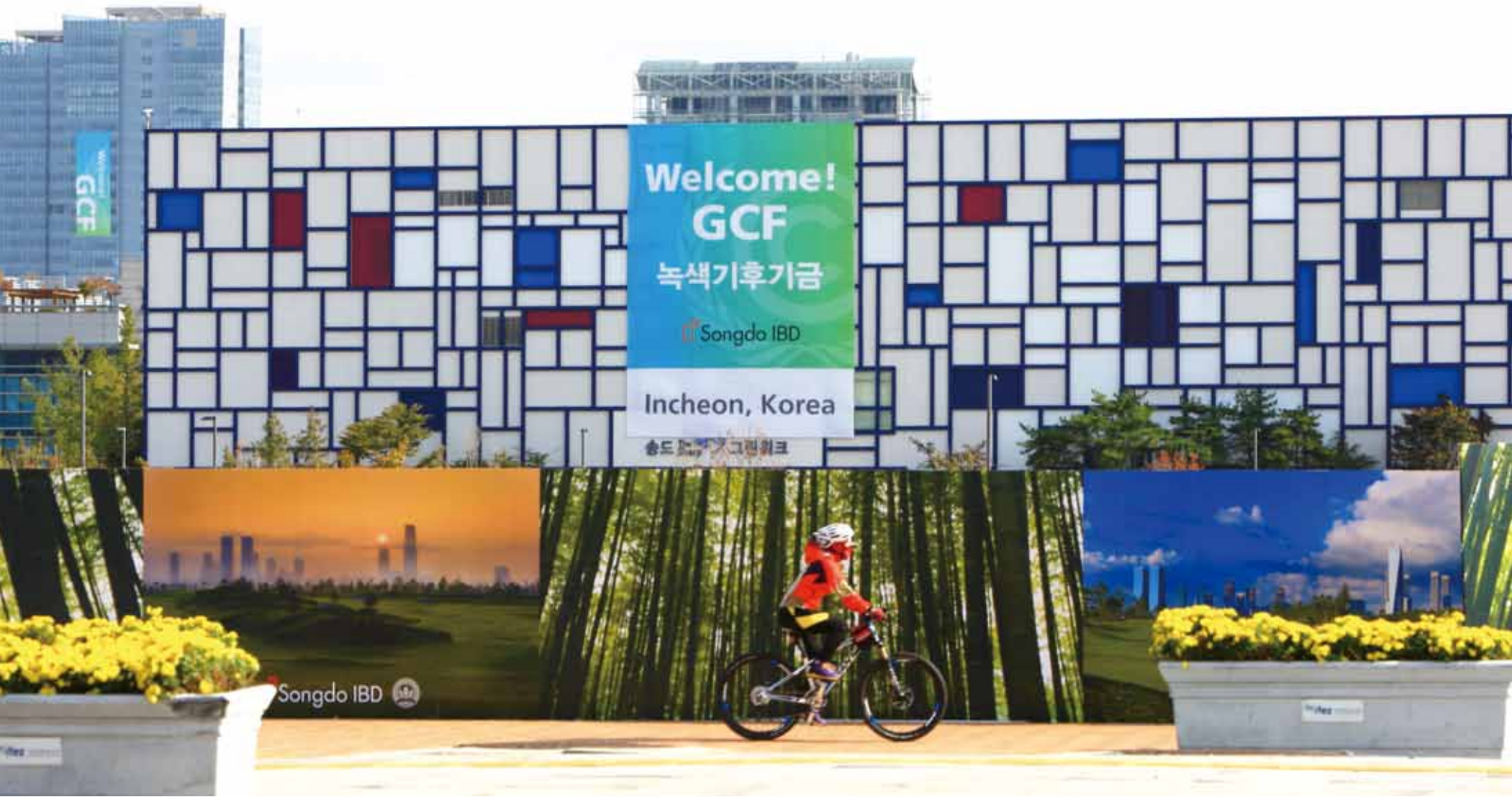
지난달 20일 낮 12시경 송도컨벤시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대한민국 인천이 확정 발표되었다. 그 순간 한 유럽 국가의 대표는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매우 놀랐다. 환경 분야 선진국이며 유럽의 강국인 독일을 꺾은 한국의 대역전극에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천은 큰 기술로 ‘막판 뒤집기’를 했다.

인천이 지난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제2차 이사회 투표에서 강력한 후보 독일의 본을 꺾고 GCF 사무국 유치가 성공했다. 인천은 이날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한 쾌거를 이뤄냈다.

GCF는 가입국이 UN 회원국보다 1개국 많은 194개국인 최대 규모의 글로벌 국제기구다. 대한민국은 GCF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단숨에 자본금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세계 3대 국제금융기구 중 한 곳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는 이달 중에 GCF 사무국 인천 유치를 승인할 예정이다. 현재 독일 본에 있는 GCF 임시 사무국은 내년 3월까지 송도국제도시 I-Tower로 옮겨와 업무를 시작한다. 이제 인천은 초록별 지구의 환경을 푸르게 지켜내는 수호천사가 된다.





# ‘초대형 글로벌기업’ 유치 효과

인천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송도 유치로 경제, 외교적인 효과를 누리게 됐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큰 규모의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민국이나 인천의 입장에서는 큰 경사다. 우선 주재원 500명의 상주로 나타나는 경제효과가 상당하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지구촌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대표로 부상하는 등 국격상승의 효과가 크다.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녹색기후기금(GCF)유치의 효과

### 직접적 효과

- 지역(송도) 내 내국인 고용 창출
- 상주 직원 및 가족들의 소비로 내수 진작
- 국제회의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간접적 효과

- 지구촌 환경 이슈에 관한 국가 이미지 제고
- 북한발 안보 리스크 경감 효과
- 환경 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국내 중장기 산업전략의 계기
- 서비스 산업, 컨벤션 산업 활성화 계기
- 국제기구 추가 유치에 탄력

## ‘환경분야 세계은행’ 기금 최대 8천억 규모

GCF 사무국 인천유치로 인천은 재정·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GCF는 2020년 그 규모가 최대 8천억달러(약880조 원)로 불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육박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GCF 사무국 유치는 초대형 글로벌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말한다.

GCF 사무국은 처음 50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앞으로 기금이 확대되고 발전하면 1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들과 함께 입주할 가족들의 수까지 따지면 상주인원은 두세 배로 늘어난다. GCF 사무국 유치로 국내 고급일자리가 창출되고 컨벤션, 포럼, 컨퍼런스, 세미나 등 국제회의만 연 120회 이상 열릴 것으로 보여 관련 분야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GCF유치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만 연 3천800억원에 달한다. GCF 사무국 유치로 매년 인천 송도를 찾는 사람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련 국제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기금을 지원받고자 수많은 개도국들이 인천에서 세미나를 열게된다. 1년에 120여 차례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이는 3일에 한 번 꼴로 국제회의를 여는것과 같다.

## 송도 경제자유구역 투자도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림픽, 월드컵은 직접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만 국제기구는 한번 설립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효과가 쌓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GCF 사무국 유치로 인천 송도는 국제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확실히 쌓았다. 우리나라에는 국제기구다운 기구가 거의 없고 현재 32개의 국제기구 가운데 10개가 송도에 입주해 있다. 뉴욕이 유엔본부 건물이 있어 국제도시의 상징이 된 것처럼 GCF 유치로 인천은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도시’가 됐다.

GCF 사무국 유치로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년 3천8백억 정도의 경제효과는 물론 태양광과 2차 전지 등 국내기업들의 녹색산업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GCF가 정부 주도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한국녹색기술센터(GTC-K)와 함께 자본과 기술, 정책 등에서 녹색성장을 이끈 ‘그린트라이앵글’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남북관계 긴장억제 등 대외, 정치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송도는 GCF 사무국 유치로 관광객이 늘고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는 국제도시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 GCF 인천 유치, 초록빛 꿈 현실로

인천에서 초록빛 꿈은 현실이 된다. 인천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했다. 우리시와 정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국민의 뜨거운 성원이 이룬 값진 결과다. 인천이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선정되기까지 행보를 돌아보며, 초록으로 빛날 지구의 미래를 그려 본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심영보·하장원\_시 대변인실



## 초록빛 희망으로 세계가 인천을 선택

지구를 초록빛으로 살릴 희망으로, 세계가 인천을 택했다. 지난 달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CF 2차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동지로 최종 선정됐다. 민관대표단은 순간 환호성을 올리며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안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영길 시장도 서로에게 축하를 건네며 뜨겁게 두 손을 마주잡았다.

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유치는 정부와 우리시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인천시민 나아가 국민의 성원이 이룬 값진 성과다. 송 시장은 “인천에 GCF 사무국을 유치해 가슴이 벅차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이는 290만 인천시민과 한마음으로 이뤄낸 승리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며 희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인천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환경세계 중심도시로 우뚝 선다. 인천이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선정되기까지의 행보를 돌아보며, 초록으로 빛날 지구의 미래를 그려 본다.



## 290만 시민이 함께 했기에 가능

시는 송 시장과 최기선 시민대표를 공동대표로 각계각층의 인사 123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지원협의회’를 출범, 범시민적 역량을 집결하고 국내외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또 실무·환경정비 추진단을 구성해 GCF 사무국 유치에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대한민국 유치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번 유치에 힘을 실었다.

시는 또 GCF 사무국 인천 유치를 지원하는 송도마라톤대회, 시민걷기대회, 송도세계문화축제, GCF Welcome Concert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또 이와 함께 친환경자전거축제, 굿마켓, 송도 환경을 정비하는 클린업 데이 등의 행사를 통해 녹색성장의 모범도시 송도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아울러 송 시장은 공중파 방송, 라디오, 신문 인터뷰를 통해 GCF 2차 이사회 준비상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GCF 관련 사항을 국민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의지를 각인시켰다.

## GCF는

전 지구적인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이다. GCF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만든 기후변화 특화기금. 내년 사무국을 출범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 총 8천억달러(904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8천450억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로, GCF의 위상은 세계은행(W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 I-Tower는

I-Tower는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시는 GCF 사무국을 유치하고자 I-Tower의 절반인 15개층 무상대여를 내세웠다. 독일의 경우 건물을 새로 건설해야 했고, 스위스는 기존 건물 2개층으로 제한돼 있었다. I-Tower는 5개 분야 건축물 성능 최고등급에 설계와 건축에 자연을 녹인 최첨단 친환경 건물이다. GCF 사무국을 비롯해 6개 국제기구의 입주 예정인 국제기구 전용빌딩이다. 24·4구역 2만4천㎡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로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 GCF 사무국 유치까지, 인천의 눈부신 행보

송 시장은 29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GCF 사무국 인천 유치에 적극 나섰다. 그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GCF 이사국 대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인천으로 마음을 움직였다.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CF 1차 이사회에서 정부와 우리시는 송도국제도시의 탁월한 입지조건을 유치국 평가위원회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또 같은 달 송 시장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라스 로크 라스무센 의장을 만나 GCF 유치와 GGGI와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송도에 입주한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국제기구 차원의 지원을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녹색기후기금 이사국 및 대리 이사국 주한대사 16명을 송도국제도시에 초청해 송도를 소개하고 GCF 사무국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지난달 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녹색성장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며 GCF 사무국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프랑크 엔센 코펜하겐 시장, GGGI 의장, 덴마크 중앙은행 부총재이자 녹색기후기금 덴마크 이사 펄 캐러슨 등을 만나 송도국제도시의 친환경성과 공항을 가까이 둔 지리적 이점, 인천시민의 유치염원 등을 전했다. 이어 저녁 만찬에서도 덴마크 슈미트 총리에게 지지를 요청했으며 필립스 CEO인 프란스 반 하우튼과 만나 인천 투자 및 GCF 사무국 유치지원을 요청했다.

송 시장은 지난달 16일 녹색기후기금 2차 이사회에 앞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포럼에서도 막바지 유치 홍보에 온 힘을 다했다. 바베도이스 대표와 벨리즈 대표, 영국 대표 등과의 만찬자리에서 인천과 송도국제도시를 홍보하고 GCF 사무국 유치의 당위성을 피

력했다. 축사를 통해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의 대부분을 인천 송도에서 촬영한 사실을 전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싸이의 GCF 사무국 유치 염원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세계인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인천은 막바지 유치전까지 치밀함을 기해 이사국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는 2차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 GCF 사무국의 둥지가 될 I-Tower에서 정부 주관 만찬을 열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이사국 대표들은 수상택시를 타고 노을이 내리는 센트럴파크에서 I-Tower로 향하며 연신 “Fantastic”을 외쳤다. 심지어 독일 대표단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I-Tower 옥상에서 본 송도의 야경과 다문화가정의 공연도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후문이다. 송도국제도시의 아름다움과 전략적인 행사, 290만 시민의 염원이 모여 GCF 사무국 인천 유치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 GCF 사무국 유치, 시작부터 성공까지

- 2011. 11. 25 정부, GCF 유치전 참여 결정
- 2011. 12. 07 정부, 남아공 더반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유치의사 공식 표명
- 2012. 03. 13 GCF 사무국 입지선정위원회, 인천 송도 GCF 사무국 국내 후보도시 확정
- 2012. 04. 15 유치신청서 제출(한국·독일·스위스 등 6개국)
- 2012. 05. 29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범시민 자원위원회 출범
- 2012. 07. 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GCF 유치 전담팀(TF) 구성
- 2012. 08. 23~25 스위스 제네바 1차 이사회, 후보국별 프리젠테이션
- 2012. 09. 16~18 미국 워싱턴에서 평가위원회 평가회의 개최
- 2012. 10. 07 김황식 국무총리, 송영길 시장 덴마크 코펜하겐 글로벌녹색성장포럼(GGGF) 참가, GCF 사무국 송도 유치 당위성 설명
- 2012. 10. 08 평가위원회 평가보고서 신청국에 통보, 한국·독일·스위스 3개국에 전 항목 '충족' 평가
- 2012. 10. 15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송도 설립 검토 발표
- 2012. 10. 20 인천 송도, GCF 2차 이사회에서 표결로 유치 성공
- 2012. 12월 초 카타르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치국 선정결과 인준 예정





# 골목집에 묵으며 ‘인정(人情)’을 나누다

Guest House  
Incheon Life



호텔보다 게스트하우스, 저렴한 숙박요금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의 공간에서 비슷한 여행자들이 함께 어울려 정보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게스트하우스만의 큰 즐거움이다. 인천의 오래된 한옥, 일본집들이 게스트하우스로 변신, 외국배낭객은 물론 국내여행자들의 쉼터로 새로운 문화체험의 장소가 되고있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 상우재(尙友齋)

중구 송학동에 위치한 상우재는 140평의 넓은 대지에 꽃과 나무가 예쁘게 피어있는 게스트하우스다. 올해 5월 오픈한 이 집은 70여 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일제때 경기도 인천시 도립병원장의 집이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장교가 들어와 살았다. 집의 기본구조는 일본식이지만 미국, 한국인으로 사는 사람이 달라지면서 거실에 벽난로를 설치했고, 방문은 일본식 미닫이에서 서양식으로 바뀌었으며 방바닥은 한국식 온돌구조를 갖췄다. 하지만 아직도 문고리, 현관문, 창문모양, 복도식 구조는 이집이 원래 일본식으로 지어졌음을 보여준다. 현재 상우재의 주인은 이 집의 역사성과 보존가치를 감안, 옛 형태를 살려 리모델링했다. 방값은 하루 3~4만원 선이다. 하루 추가 시 1만원씩 요금을 더 받는다. 식사는 별도 비용을 받고 제공한다.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는 방은 화장실이 붙어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고 일본인 여행객, 사회복지사 사이버 모임 단체회원들이 다녀갔다.

상우재 바로 뒤는 일제때 심신을 단련했던 무덕관 터다. 집의 문설주가 무덕관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 당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상우재의 주인 우선희씨는 “조용하고 7,80년대 분위기 남아있어 이곳을 서울의 북촌과 같은 게스트하우스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상우재는 ‘좋은 벚들이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우고 텃밭에 초목들 풀향기 휘날리며 날짐승, 풀벌레들이 함께 장단을 맞추는 곳’이라는 뜻이다.

위치 : 인성여고 옆 문의 010-3065-8562







## 팟알(Pot.R)

1890년대 지어진 일본식 건물 팟알로 가는 길은 시간여행을 하는 듯하다. 오래된 일본식 목조 건물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를 걷다보면 1900년대 초 개항기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진다. 120년의 역사를 켜켜이 안고 있는 카페 팟알은 원래 19세기 일본 하역사 사무실이었다. 당시는 현재 아트플랫폼 자리까지 바다였기에 배를 통해 들어오는 물건들을 관리했다. 일본식 목조건축물로 3층 형태는 유일하게 남아있다.

건물은 120여 년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원 집주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태어나 77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뀌 적이 없다. 난방도 가스도 들이지 않아 집을 훼손하지 않았다. 이런 건물의 보존가치와 역사성 때문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집을 변형하지 않으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현 백영임 시장이 결국 집의 주인공이 됐다.

19세기 하역사 사무실에서 카페 팟알로 재탄생한 이 건물은 현재 1층은 카페로 활용되고 있고, 2~3층은 게스트하우스로 내년 오픈할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면서 살릴 수 있는 원형은 그대로 살렸고 난방과 단열에 신경을 썼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1930년대 일본요미우리 신문, 1900년대 일본벽지, 포스터 등이 발견돼 화제가 됐다. 이중 삼중으로 덧바른 벽지가 보물 창고였다.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2~3층은 전형적인 일본 다다미방으로, 여기에 왕골로 짠 다다미를 깔아 깨끗하고 세련되게 다시 꾸몄다. 게스트하우스 하루 숙박료는 4~5만원선. 훗날 소모임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위치** 중구 관동교회 옆 **문의** 777-8686



## 경동 경기의료기 한옥집

중구 경동거리는 7,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과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며 다녀야 할 정도로 변화가였다. 웨딩숍, 가구, 극장 등 사람이 모일만한 요소는 모두 갖춰 서울의 명동못지 않은 상권을 이뤘다. 인천 기독교병원 인근에 위치한 경기의료기는 의료기 상점이지만 안채엔 온전한 한옥 한 채가 보존되어 있다. 한옥은 90년 전에 지어졌다.

한옥은 오래전부터 비워져 있다. 의료기상 주인인 박차영 대표가 가족과 오래 살았지만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어렵고, 겨울에 추운 한옥의 불편함 때문에 이사했다. 빈 한옥은 이집의 사정을 아는 인근 문화계 인사들의 요청으로 몇해 전부터 게스트하우스가 되었다. 한옥은 외국 작가들에게 우리전통도 보여주고 문화도 알릴 수 있는 장소다. 박차영 대표도 사람끼리 부딪히고 소통하며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것이 좋아 선뜻 집을 내주었다.

주인은 인천에 온 외국인들에게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들을 대한다. 음식을 같이 나눠먹으며 여행객들과 친교를 쌓았다. 경동 한옥집은 주로 여름기간에 한해 여행객들이 묵고 있지만 정식 인가를 낸 게스트하우스는 아니다.

박 대표는 도보여행가다. 도보로 서해안을 일주하며 여행을 즐긴다. 박 대표는 “게스트하우스가 호텔, 여관보다 불편할 수 있어도 뻔한 잠자리보다 정을 나누며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어 좋은 잠자리”라고 강조한다.

**위치** 인천 기독교병원 앞 **문의** 772-0470







### 영종도 조병수 가옥

조병수 가옥은 현재 살고 있는 주인장의 이름을 붙인 1890년대 지어진 고옥(古屋)이다. 밖에선 집이 잘 보이지 않으나 집에선 바깥풍경이 훤히 보이는 풍수에 근거하며 뒷산과 나무들이 엄마의 품처럼 집을 포근히 감싸고 있다. 후손들은 아늑하고 고즈넉한 집을 6대째 지키고 있고 1997년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주인장 조병수 선생은 조상이 150년 전인 철종때 서울 마포 용강동에서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전한다.

조병수 가옥은 옛 한옥의 원형 그대로다. 집은 중부해안의 중류농촌 가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조병수 가옥은 인천에서 진짜 한옥 체험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이다. 아궁이에서 나무로 군불을 때는 모습, 흙냄새, 종이냄새가 정겹다. 방마다 걸려있는 한시를 읊어보고 그 뜻을 읊미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체험비는 큰방 6만원, 작은방 3~4만원 정도. 식사는 한끼당 7천원 선. 주인장 조병수(66) 선생은 “한옥은 스토리텔링이 무궁무진하고 운치가 있는 곳이기에 한옥을 아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문의 011-8746-3056



### 배다리 달이네

인천의 문화중심가 배다리에 들어서면 길 모퉁이에 파란칠을 한 낡은 2층 집을 만나게 된다. 이곳이 배다리의 게스트하우스 ‘달이네’다. 올해부터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한 달이네는 한옥과 일본식이 혼합된 가옥구조다. 방 4개가 여행객들에게 제공되며 방에는 침구는 물론 따듯하게 쓸 수 있도록 전기판넬을 방마다 깔았다. 요금은 1박에 2만원선. 집은 환경과 생명을 소중히하는 주인장과 닮았다. 주인장의 별칭은 ‘청산별곡’. 집은 게스트하우스 외에도 북카페, 책방, 유기농먹거리 작은가게, 재활용가게, 뜨개공방 등으로 오밀조밀하게 꾸몄다.

달이네를 찾는 여행객은 주로 주인장 청산별곡과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곳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블로그를 통해 아름답게 찾아온다. 환경운동가인 주인장 청산별곡은 여행객들이 온전히 쉬면서 여행지를 즐기고, 재미있게 보기를 권한다. 그래서 여행객이 원하면 본인이 직접 신포시장, 수도권산박물관 등 주변의 관광지

를 안내하고 설명한다. 달이네를 찾는 여행객은 고양이와의 잠시 동안의 동거를 기꺼워해야 한다.

순하고 귀여운 고양이 네 마리도 달이네의 텃주대감이다.

문의 011-9007-3427







# 가을, 문학이 가슴에 스미다

시린 하늘 수더분한 땅 빛. 문학이 가슴에 스미는 계절이다. 책 한 권 손에 들고 훌쩍 길을 나선다.  
인천에는 강화문화관과 육필문학관, 두 곳의 문학관이 있다. 문향(文香) 머무는 그곳에서, 가만히 문인의 가슴을 그려본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강화문화관 주변 용홍궁



## 꽃자리에 그윽히 서린 문향

강화문화관은 역사 깊은 고려궁지와 성공회성당 그리고 용홍궁의 품에 안겨 있다. 기품 있는 소나무와 목백일홍이 에두르고 있는 반듯한 건물. 현대적 풍경 속 더디고 정묵한 풍경이 오롯하다.

“이곳은 사십년 고려도읍의 터전이자 조선 오백년의 강화유수부가 자리했던 강화도의 유서 깊은 꽃자리입니다. 이 좋은 터에 피어난 강화문화관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학문과 글을 높이 산 선인들의 정신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곳을 ‘꽃자리라 칭하며 보듬어 아끼는 이는 강화문화관의 초대관장 양태부 시인이다. 시인은 관장자리를 떠난 지금도 객을 문학관과 그 주변으로 이끌고 있다. 문학관에 들어서서는 사실 좀 낙심하였다. 주변의 아름다운 정취와 유구한 역사에 비해 문학관은 설익고 궁색했다. 1층 전시실에는 이규보, 정철, 정제두, 권필, 정인보… 강화와 인연이 깊은 문인들의 삶과 작품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유품이 아닌 패널 전시물로만 그 흔적을 쫓기에 강화문학의 역사는 너무 깊고도 깊다. 하



강화문화관 전경

## 여행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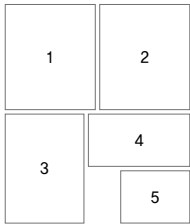
### 강화문화관

가는 길 강화대교→강화군청→강화초교 입구 삼거리에서 우회전→고려궁지 방면으로 약 200m 직진. 용홍궁공원 내.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문의 933-0605

### 육필문학관

가는 길 초지대교 건너 우회전→광성보 입구에서 좌회전→해안도로→드라마세트장에서 좌회전→농로 진입 후 우회전. 이용 팁 육필문학관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전국 백일장과 초등학생 대상의 전국 시낭송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낭송회와 동시교실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전화로 예약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2244-7776





- 1 강화문학관 내 조경희수필문학관
- 2, 4 강화문학관 1층 전시관
- 3, 5 늦가을 물든 강화문학관 주변



6 조경희 - 선생이 탐독하던 책들 7 조경희 선생이 생전에 쓰던 안경 8 1978년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조경희 선생의 수필 '얼굴'

지만 20여 년 강화 땅에 살며 인문학적 가치를 전해 온 이의 설명에는 뿌듯함이 배어 있다.

“많은 사람이 강화도를 역사적 의미를 지닌 전적지로만 알고 있지, 역사에 길이 남을 문장가들이 인문학적 뿌리를 형성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강화 가슴 깊숙이 이 땅의 자랑스러운 정신과 인문학적 전통이 살아 숨 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층으로 오르면 현대 수필문학의 대모 조경희 선생의 삶과 문학이 펼쳐진다. 시심이 흘러넘치던 펜과 시인이 앉던 나즈막한 책상, 손수 쓴 원고 등의 유품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예술작품들까지. 선생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속 깊이 간직했던 전부를 아낌없이 내주었다. 하지만 그 큰 뜻에 비해 웅색하게 꾸며진 전시환경을 접하니 마음 한편이 쓸쓸하다.

“감감한 어둠만이 있는가 하면 밝은 태양과 광명이 있듯이, 천차만별의 얼굴들 중에서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얼굴들이 지닌 표정의 색깔이란 막연하나마 좋은 것이라고 부르고 싶다. 한마디로 좋은 인간성의 표현일 것이다. 인격이나 교양, 지성 등등 이라고 해도 좋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의 진실한 의미의 표지일 것이다.” (‘얼굴’ 중에서)

그의 글은 시간을 초월해 울림을 전하는 데, 시인의 자취는 자옥한 먼지에 묻혀 남아 가고 있었다.

## 조경희 수필문학관

Joh Gyung-Hee Essay Literature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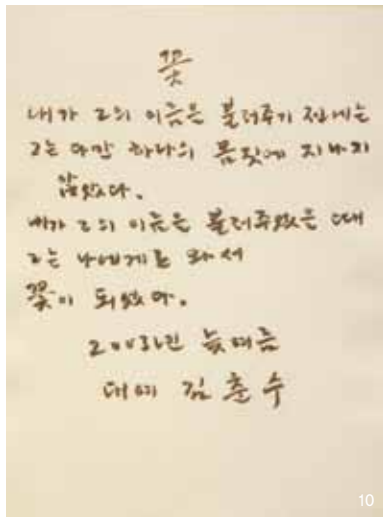


8





9



10

9 노희정 관장과 그가 사랑하는 시인들 10 김춘수 시인의 손글씨 11 육필문학관의 사랑방 '시예람'



11



## 육필에 흠뻑 배인, 시인의 마음

문향에 이끌려 강화에 온 이들이 강화문학관을 건너 다다르는 곳은 육필문학관이다. 해안도로에서 논두렁 사잇길로 가다 보면 아담한 자태의 건물이 객을 반가이 껴안는다. 선명한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웅기종기 쓴 그 이름, '육필문학관'.

노희정 관장은 어릴 적 품었던 문학의 꿈을 놓지 않고 한 다발 꽃 같은 공간을 피워냈다. 관장은 임찬일 시인에게서 시화 40여 점을 건네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가의 손글씨를 하나둘 그려모아 8년째 문학관을 꾸려오고 있다.

세상이 각박하다지만 시를 쓰는 마음이 있는 한 순수의 시대는 끝나지 않으리라. 그것이 바로 노 관장이 곧 흠어지고 사라질 아날로그 시대의 흔적들을 그토록 열심히 모으는 까닭이다.

서정주, 조병화, 김춘수, 정호승, 피천득... 이름도 향기로운 문인들이 하얀 종이에 써 내려간 글씨에는 그 마음처럼 맑고 숭고한 기운이 감돈다. '노희정 시인에게'. 약필이어서 남에게 자필을 남기지 않는다는 수필가 피천득 선생의 짙막한 글을 본건 뜻밖의 수확이다. 김춘추 시인의 글 앞에서도 느꼈하던 발걸음이 멈추어 선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꽃’ 중에서)  
살면서 문득문득 맴돌던 시구를 시인의 손끝에서 핀 글씨로 마주하니 울림이 더하다. 찬찬히 시를 음미해본다. 달보드레한 향이 마음 꼭 차게 번진다.  
그에게도 김춘수 시인을 찾아갔을 때의 기억은 특별하다. 백합꽃과 펜을 사 들고 맥으로 찾아가 육필원고를 부탁했는데, 문학관 운영하는 데 쓰지 뭇 하러 돈을 썼느냐 나 무라시며 ‘꽃’을 직접 써 주셨단다. 그리고 1년 후 시인은 꽃처럼 세상을 졌다. 그가 시인을 회상하며 바라보는 창 너머 노란 들판이 바람에 취해 몸을 뉘고 있었다.

노을이 내리고, 다시... 일상의 문턱을 넘는다. 문향은 문학관에만 흐르지 않았다. 길가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차이는 돌 한 덩이에도 문인들의 숨결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가만히 문인의 가슴을 그려본다. 그 여운이 길다.

## 한국근대문학관 내년 개관

### 근대문학의 꽃 다시 피다

개항기 근대문화가 흠뻑 배어있는 증구에 한국 근대문학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문학관이 들어선다.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2013년까지 아트플랫폼 옆에 한국근대문학관을 건립한다. 문학관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자료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선다. 문화재단은 문학관을 짓기 위해 근대문학자료 1만6천800여 점을 수집했다. '보리피리', '파랑새' 등의 작품을 통해 한센병이라는 천형(天刑)의 병고를 애조 댄 가락으로 읊었던 고 한하운 시인의 육필원고 등 관련 자료 220여 점을 수집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아트플랫폼과 문학관이 함께 하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근대문학을 보존하고 연구해 후세에 길이 전할 한국근대문학관의 개관일이 기다려진다.

문의 인천문화재단 455-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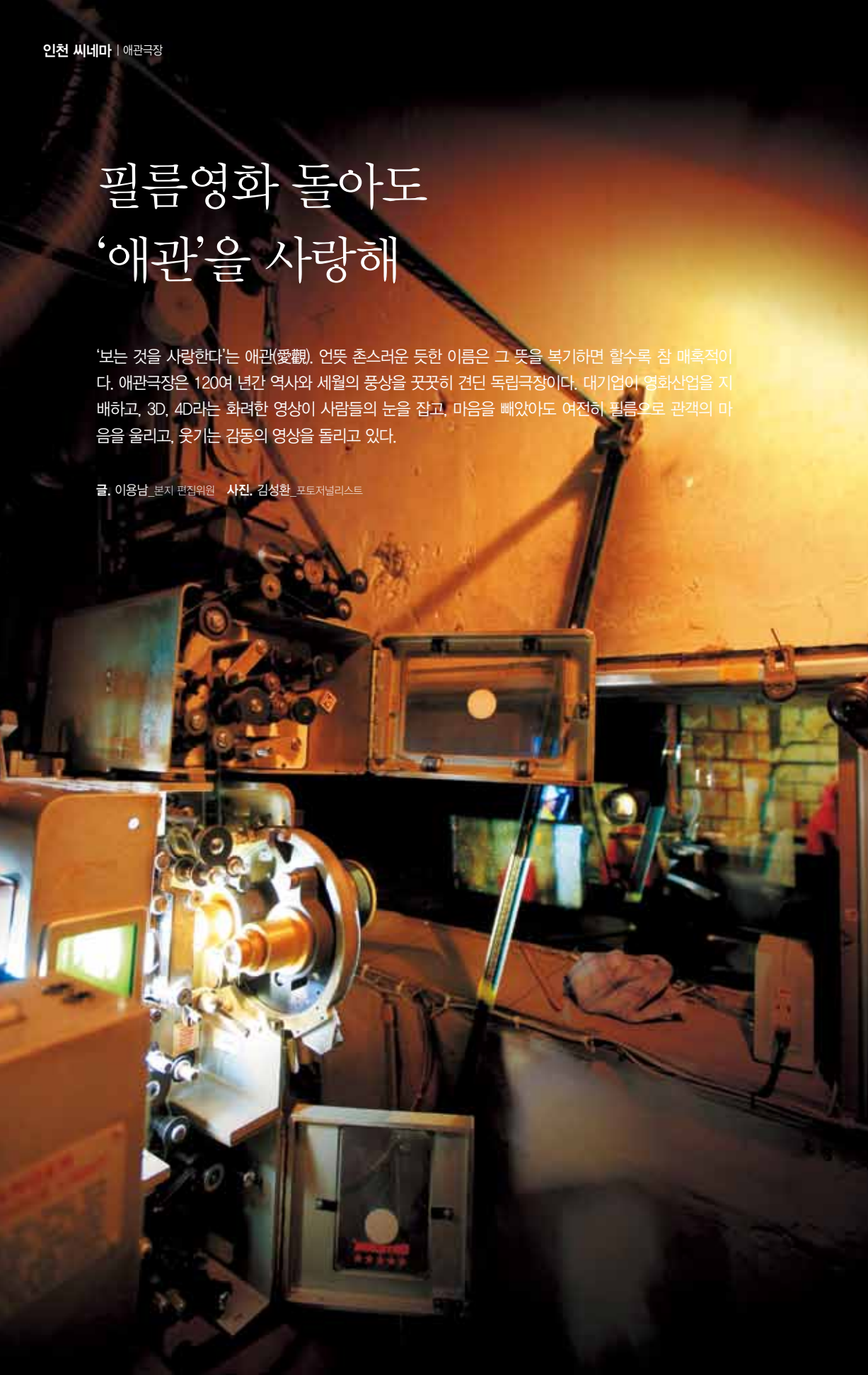




# 필름영화 돌아도 ‘애관’을 사랑해

‘보는 것을 사랑한다’는 애관(愛觀). 언뜻 촌스러운 듯한 이름은 그 뜻을 복기하면 할수록 참 매력적이다. 애관극장은 120여 년간 역사와 세월의 풍상을 곳곳히 견뎌 독립극장이다. 대기업이 영화산업을 지배하고, 3D, 4D라는 화려한 영상이 사람들의 눈을 잡고, 마음을 빼앗아도 여전히 필름으로 관객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는 감동의 영상을 돌리고 있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오전 11시 이후  
관객 10명 이상  
복합 할인  
할인 50%



평일 애관극장은 최신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이 드문드문 들락거렸다. 중고생, 중년 아저씨, 아주머니, 20대 아가씨들, 대학생 등 영화를 좋아하는 다양한 관객들이 애관극장을 찾았다. 극장은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광해’를 비롯해 소지섭의 ‘회사원’, 장동건의 ‘위험한 관계’, 외국영화 루퍼까지 최신영화가 상영중이었다.

가을을 문화의 계절이라 부르지만 사실 가을은 영화계로서는 최대 비수기다. 추석이 끝난 뒤부터 11월까지의 학생들 시험에다 야외 나들이가 많아 극장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도 다음 개봉작 포스터는 극장으로 관객들의 발걸음을 이끈다.

애관극장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영화관처럼 화려하지도 첨단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영화관이다 보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설투자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애관에서는 아직 3D, 4D영화를 볼 수 없다.

애관극장은 원래 400석 규모의 상영관 하나로 출발했으나 지난 2004년 전면 개보수를 거쳐 5개관 860석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재개관했다. 이런 변신에는 멀티플렉스의 대명사인 CGV가 큰 역할을 했다. 멀티플렉스로 재개관하면서 최신식 영상기, 디지털음향기, 의자 등도 영화를 관객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교체했다. 1관은 400석, 2·3관은 각 110석, 4·5관은 각 100여 석이다. 영사실은 3개다. 제1관 영사실엔 요즘은 보기힘든 70m와 35m 겸용 영사기가 돌아간다. 이 기계는 30년이 넘었다. 당시만 해도 서울 대한극장, 부산 대형영화관 등 전국 4곳의 영화관에만 있었던 몸값 비싼 영사기다.

영사실 최경술 팀장은 인천영화의 산증인이다. 10년째 애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전 동방, 미





립, 피카디리 극장 영사실에서 잔뼈가 굵었다. 37년째 극장 영사실을 지키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애관극장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바꾸고 영화관의 부흥을 꾀했으나 최첨단의 세련된 시설을 갖춘 영화관과 경쟁은 쉽지 않았다. 중구의 중심가 상권이 다른 곳으로 떠난 것도 한몫했다. 애관과 함께 씨네마 천국을 이뤘던 오성극장, 인영극장, 문화극장, 현대극장, 인천극장, 중앙극장, 미림극장 등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애관만이 이곳이 한때 ‘씨네마 파라디소’를 꿈꿨던 장소임을 증명한다.

애관은 첨단영상에 세련된 시설은 갖추진 못했지만 극장요금이 1천원 정도 저렴한 편이다. 조조 영화 상영시간도 다른 극장보다 늦은 편이어서 아침시간에 관객이 많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애관극장 상영관에선 광고를 틀지 않는다. 필름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줄면서 필름으로 광고를 만들지 않고 광고 제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애관극장에 영화 ‘광해’를 보러 온 차정민씨(군인, 22)는 “초등학교 때부터 애관극장에서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극장이 그대로여서 좋다”며, “성인이 돼서도 어릴적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어서 자주 찾는다”고 말한다.

디지털 영화의 대세 속 애관극장은 주춤거리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영화관들과 경쟁이 쉽지 않다. 듣자하니 필름영화 상영관이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 어느새 필름으로 영화보는 시대가 끝나간다. 시민들은 역사와 스토리를 품고 있는 애관극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힘차게 마음의 응원을 보낸다. 애관극장 파이팅!



## 애관 – 120여 년의 역사

### 1895년 건립된 대한민국 최초 극장

인천시 중구 경동 238번지,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국내 최초의 극장 애관극장이 위치한 곳이다. 애관극장은 1895년 을미개혁이 단행되던 시점에 인천 경동 네거리에 협률사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1895년 협률사(協律舍)는 부산 출신의 인천갑부 정치국에 의해 창고처럼 생긴 벽돌집을 지어 각종 공연무대로 사용했다. 날마다 박침지, 흥부놀부전 같은 인형극부터 창극, 신파연극, 남사당패의 공연을 했다.

협률사는 개항장 인천 이미지에 맞춰 잠시 이름을 ‘축향사’로 바뀌었다가 1926년경에 ‘애관’으로 개명했다. 이때부터 애관은 연극과 영화의 전문 상설관이 된다.

안타깝게도 애관극장은 한국전쟁 중에 화재로 손실됐다 1960년 9월에 개보수를 마치고 재개관했다. 좌석규모는 약 400여 석이었고 영화와 악극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동안 애관극장 부근의 경동거리는 씨네마 천국이였다. ‘무영의 악마’(인천전설영화사), 복지강화(함동영화사), ‘날개없는 천사’(국보영화사) 등이 제작, 보급되어 우리나라 영화예술의 꽃을 피운 토양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세계적인 음악가 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애관극장의 열기는 사그라지기 시작한다. 현재 애관극장 운영주는 탁정란 사장으로 1972년 극장을 인수한 탁상덕씨의 막내딸이다. 탁 사장은 애관극장이 외환

위기때 부도를 맞자 미국에서 돌아와 경매로 이 극장을 재인수했다고 한다.

1999년 11월 CGV인천 등장으로 애관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분다. 2004년 전면 개보수를 통해 5개 상영관을 갖춘 멀티플렉스영화관으로 재탄생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변신했지만 다시 디지털 영화 붐이 일면서 애관은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극장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

현재 경동거리에는 애관극장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120여 년 세월의 풍상을 견뎌냈듯이 애관은 앞으로의 변화와 시련에도 꿋꿋이 견디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 59년 백반의 맛, 담백한 비지찌개가 별미

늦은 점심이기도 했지만, 식탁 옆 벽에 해 놓은 누군가의 낙서 내용대로, 오래 전에 잊었던 ‘어머니 맛’이 확 느껴져서 모두 게 눈 감추듯 밥 한 그릇씩을 푹딱 해치웠다. 물론 전날의 숙취를 풀 겸해서 대구매운탕 냄비를 따로 주문하고 막걸리도 한 통을 곁들였다. 일행 중에 사진작가는 밥상 풍경을 앵글에 담느라고 연신 셔터를 눌러 대었지만 나머지 둘은 오불관연 부지런히 수저를 놀렸다.

글. 김윤식\_시인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우리옥 주인부부



## 끼니 밥상에서 느끼는 ‘미각의 향수’

백반은 특별한 찬을 마련한 별식이 아니라 그저 끼니 밥상에 가까운 것인데, 그래서 더욱 미각의 향수를 진하게 느끼게 하는지 모른다. ‘미각의 향수’라는 말은 역시 고 신태범(愼兌範) 박사께서 저서 <우리 맛 탐험>에서 쓰신 표현이다.

“예전에는 모든 먹을거리를 거의 집안에서 어머니가 손수 마련해 주셨으므로 미각의 향수는 어머니 손끝 맛에 집중되었다. 나이가 들어 그때의 어머니 연세와 가까워질수록 그 강도와 빈도는 더해 간다.”

이 대목이, 매우 정확하게 감성을 표출한 원문의 일부분인데 가슴 전체로 공감하게 된다. 어머니와 음식!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생명의 기억이 아닌가 싶다. 다만 박사께서는 ‘어머니 손끝 맛’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또 실제 우리옥 벽 낙서도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어머니 맛’으로 쓴다. 내게는 그냥 어머니 맛일 뿐이다. 구수하고, 습습하고, 매콤하고, 짹짹하고, 그래서 전체가 마냥 푸근하고 마냥 넉넉한 향수!

그날 우리옥의 찬은 조린 콩치 토막에 멸치볶음, 도토리묵, 두부조림, 고춧잎 나물무침과 탕계에 담아 낸 시큼하게 익은 배추김치, 순무김치, 콩나물국 따위였다. 이제 강화에서는 나지 않는 것이지만 조개젓도 입에 사뭇 개운했다. 거기에 불박이로 깔려 나오는 담백한 비지찌개 역시 또 다른 별미가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이 강화에 와서 우리옥을 찾는 것은 찬의 가지 수가 넉넉한 이유도 있을 터이지만 그 그릇 하나 하나가 내는, 한국인의 미각에 각인되어 있는 이 구수하고, 습습하고, 매콤하고, 짹짹한 ‘어머니 맛’을 잊지 못하는 까닭일 것이다.







### ‘우리집으로 갑시다’로 시작된 상호명

막걸리를 한잔 쪽 들이키고는 매운탕 국물을 몇 숟가락 떠 넣는다. 그 얼큰함, 개운함이 좀 전까지 어질하게 남아 있던 머릿속 술기운을 쫓아 버리고 시원하고 뿌듯하게 해장을 시켜준다. 돌아와 생각하니 토장에 찍어 씹을 씹먹은 삶은 호박엿은 또 얼마나 훈훈한 맛이었던가!

지난 7월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에 선정된 전국의 100군데 대표 식당, 밥집 중에 백반집은 인천 중구의 명월집과 여기 강화의 우리옥 두 군데뿐이라고 한다. 워낙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여서 오가는 사람들의 공복을 채우기 위해 상밥집이 발달을 한 것인지 모른다.

아무튼 두 집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각각 꾸려져 왔다. 그런데 묘하게도 몇 가지 유사한 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인의 신상 경력이나, 우연히 지어진 옥호의 작명 같은 것이 그렇다.

우리옥은 1953년, 휴전되던 해 친정 고모가 지금 주인 방영순(方英順)씨와 언니, 그리고 방씨의 사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밥집을 냈던 것이 시초다. 고모는 술하에 자식이 없어 일찍 부모를 여읜 조카 방영순씨 자매들을 키우고 공부시켰다고 한다. 물론 다른 생계 수단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밥집을 하게 된 데에는 그 당시 강화문화관장으로 있던 유지영(劉智榮)씨라는 분의 중용 때문이었다. 문화관 직원들은 대놓고 먹을 마땅한 밥집을, 방씨의 고모는 수입이라는 이득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처음 밥집은 시장 근처에다 옥호도 간판도 없는 그런 집이었다. 우리옥이라는 이름은 유지영 관장은 늘 점심때가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 식사하러 ‘우리 집’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얻어진 별명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얻어진 옥호였다.

유지영 관장이 방영순씨 고모의 백반집으로 직원이나 손님들을 이끌고 오면서 “우리 집” 운운했던 것은 우선 음식 맛 때문이었다. 고모가 내놓는 상밥은 ‘집에서 먹는 밥 맛’ 그대로였던 까닭에 ‘우리 집’이라는 말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에 유 관장의 부인과 방영순씨의 고모가 매우 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유도 있었던 것이다.

훗날 인천시장을 지내는 윤갑로(尹甲老) 군수가 그 후 유지영씨와 자주 동행하면서 ‘우리옥’이 확실한 상호로 굳어지는 내력을 가진다. 윤 군수는 1946년 강화문화원의 전신인 강화문화관 초대 관장을 지냈고, 유지영씨는 뒤이어 2대 관장을 맡았으니 두 사람이 자주 어울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집, 우리 집” 하던 것이 실제 음식점 허가서에는 ‘집’ 대신에 ××옥 하는 식으로 ‘옥’ 자를 넣은 것이다.

### 5,60년대 좁고 햇빛은 이들을 품었던 밥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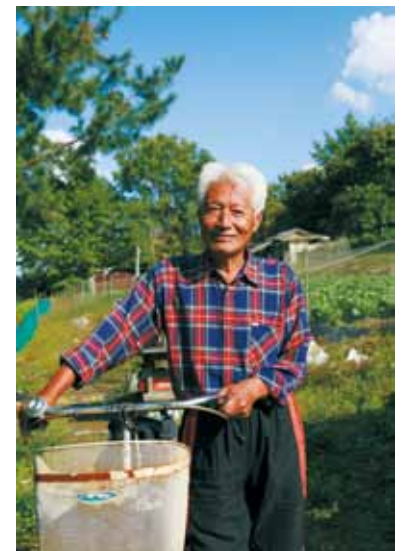
중구의 명월집처럼 이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우연에 의해 상호가 정해진 점 외에도 두 집 주인이 가졌던 비슷한 전직(前職)이 또 흥미롭다. 강화 토박이 방영순씨도 처음에는 상고를 나와 양도면사무소에서 약 8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통근이 힘들어 강화 경자직물로 이직한다. 그곳 경리부에서 역시 8년 가까이 근무를 한 것이다. 결혼 후에도 얼마 동안은 회사에 나가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또 늙고 외로운 고모를 모시기 위해 쉬게 된다. 고모를 모시다 보니 결국 밥집을 맡게 된 것이다. 옛날에는 근처가 다 시장이어서 역시 시장 상인이나 근처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 50년대, 60년대, 집에서 찬 보리밥 덩이를 들고 나와 국물만 사 먹던 야채 행상 아주머니들, 아이들이 팔린 오갈 데 없는 과부 아주머니가 가게에서 살다시피 해 식구만 해도 10식구가 넘던 때, 배고픈 사람들의 쉼터 노동자…. 고모도 방영순씨도 그들을 차마 배고프지 않게 끌어안고 살아왔다. 그것이 남의 허기를 채우는 백반 장사들의 고운 마음이었다.

아침에는 굵은 소나기가 내려 이 비 내리고 나면 가을이 더 깊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를 달려 왔는데 강화에 도착하니 해가 나고 하늘이 눈물이나도록 새파랗게 드러나서, 물론 백반과 파란 가을 하늘이 내심 좀 덜 어울린다 하는 느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때 생전의 어머니 생각이 왈각 솟구쳤다. 밥을 먹고 길가로 나와 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84번지, 도시 계획으로 옛집은 헐리고 20여 평 가건물로 변한 59년 우리옥 뒤쪽 하늘을 한없이 바라보았다. 우리옥 ☎773-7890

※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은 농림수산물부와 한식재단이 선정했습니다.



▼ 식당찾은 동네 할머니





# 11월 공연·전시 Calendar

SUN	MON	TUE	WEN	THU	FRI	SAT
				<b>1</b> 연극<라이어 1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2만 5천원 ☎500-2000	<b>2</b> 인천무형문화재 전승공연 오페라 <마술피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15만원, R석10만원, S석 7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인천오페라단 429-0248	<b>3</b> 오페라 <마술피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15만원, R석10만원, S석 7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인천오페라단 429-0248
				연극<라이어 1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2만 5천원 ☎500-2000	2012 이은주무용단 레파토리 공연-달꽃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이은주무용단 835-8621	Beethoven Symphony for 2 pianos,8 hands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2만원 ☎인천피아노협회 010-8579-8959
						연극<라이어 1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3시, 6시 / 2만 5천원 ☎500-2000
<b>4</b> 오페라 <마술피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VIP석15만원, R석10만원, S석 7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인천오페라단 429-0248	<b>5</b>	<b>6</b>	<b>7</b> 뮤지컬<색친구들이 위험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4시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상상 010-6757-1948	<b>8</b> 뮤지컬<색친구들이 위험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11시 /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상상 010-6757-1948	<b>9</b>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주)하늘이엔티 322-2121	<b>10</b>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주)하늘이엔티 322-2121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 전석 1만원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833-2080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쇼케이스 김지 김지: 예주지 행위예술 인천아트플랫폼 C동 다목적실 오후 3시 / 무료 ☎760-1005		콘트라베이스 4중주 부개문화사랑방 저녁7시 / 3천원 ☎507-5996	황해도 전통춤 소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은율탈춤보존회 875-9953	판소리共場 '바닥소리'의 이야기가 있는 소리판 부평문화사랑방 저녁7시 / 3천원 ☎505-5995	순문회 피아노, 리사이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순문회 010-4842-6882
연극<라이어 1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3시, 6시 / 2만 5천원 ☎500-2000						인천아리랑 3 심사위원의 마을축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4시 / 무료 ☎760-3457
<b>11</b>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VIP석 13만원, VIP석 11만원,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주)하늘이엔티 322-2121	<b>12</b>	<b>13</b> 제18회 매일클래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3만원 ☎예인예술기획 586-0945	<b>14</b> 인천해광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30분, 오후 3시30분 / 초대 ☎인천해광학교 522-8345	<b>15</b> TBN인천교통방송 개국 11주년 기념 축하공개방송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TBN인천교통방송 453-1214	<b>16</b>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3회 정기연주회 <금난새, 말러를 노래하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엔티켓 1588-2341	<b>17</b> 인천청소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 초대 ☎인천청소년필하모닉오케스트라 821-9001
해설이 있는 중국 전통 경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초대 ☎인천국제교류센터 451-1725		제8회 플립스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플립스플루트 오케스트라 249-2665	커피콘서트9 <여성 5인조 드럼캐트의 비트&드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하이즈 1588-2341	인천시립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560-4345	뮤지컬<별거벗은 임금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영기획 02-959-2830	뮤지컬<별거벗은 임금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1만5천원 ☎영기획 02-959-2830
				음악교육극 앤서니 브라운의<행복한 미술관>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4시 / 1만 5천원 ☎500-2000	음악교육극 앤서니 브라운의<행복한 미술관>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4시 / 1만 5천원 ☎500-2000	음악교육극 앤서니 브라운의<행복한 미술관>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4시 / 1만 5천원 ☎500-2000
						'올라임 아나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4시 / 무료 ☎760-3457
<b>18</b> 제1회 작은 행보를 나누주는 미추홀 오돌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 초대 ☎미추홀오돌단 765-0250	<b>19</b> 뮤지컬<별거벗은 임금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영기획 02-959-2830	<b>20</b> 제29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무료 ☎(주)프로아트 02-585-2394	<b>21</b> 바다의 별 장학회 기금 마련 자선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2만원 ☎미추홀아트센터 518-1511	<b>22</b> 인천시립합창단 제323회 정기공연<오델로> (고3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 전석 2천원 ☎시립합창단 1588-2341	<b>23</b> 인천시립극단 제33회 정기공연<오델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학생청소년 1만5천원, 성인 2만원 ☎시립극단 1588-2341	<b>24</b> 인천시립극단 제33회 정기공연<오델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학생청소년 1만5천원, 성인 2만원 ☎시립극단 1588-2341
<b>25</b> 인천시립극단 제36회 정기공연 <오델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학생청소년 1만5천원, 성인 2만원 ☎시립극단 1588-2341	<b>26</b> 인천시립극단 제36회 정기공연 <오델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학생청소년 1만5천원, 성인 2만원 ☎시립극단 1588-2341	<b>27</b> 루마니아바키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3만원 ☎(주)프로아트 02-585-2394	<b>28</b> 호프마이스터 서거 200주년 기념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인천심포니오케스트라 431-6041	<b>29</b> 인천시립극단 제36회 정기공연 <오델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학생청소년 1만5천원, 성인 2만원 ☎시립극단 1588-2341	<b>30</b> 번 더 플로어(Burn The Floor)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36회 정기공연 <오델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학생청소년 1만5천원, 성인 2만원 ☎시립극단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36회 정기공연<오델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학생청소년 1만5천원, 성인 2만원 ☎시립극단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36회 정기공연 <오델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학생청소년 1만5천원, 성인 2만원 ☎시립극단 1588-2341		'늘근도둑 이야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7시 / 1만원, 학생 무료 ☎760-3457
			백영규의 가고 싶은 마을 공개방송 부평문화사랑방 저녁7시 / 3천원 ☎505-5995			서울필스와 함께하는 'Jazz 속의 피톤치드' 부평문화사랑방 저녁7시 / 3천원 ☎505-5995

## 시립교향악단 제323회 정기연주회 금난새, 말러를 노래하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야심 찬 프로젝트 <금난새, 말러를 노래하다>로 2012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말러의 교향곡 중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1번과 5번을 각각 11월과 12월에 감상할 수 있다. 11월에는 먼저 말러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을 연주한다. 또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김봉소리가 유려한 연주로 모차르트의 시적 감성과 은은한 향취를 머금은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을 들려준다.

일시 11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연극 라이어 1탄

국민 연극이라는 수식어답게 300만 관람객 돌파로 연일 한국 연극사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라이어'가 인천을 찾는다. "철두철미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존 스미스의 이중생활이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존의 이중생활을 의심하는 형사와 어설쁜 거짓말로 상화를 더 악화시키는 스탠리... 더 꼬여만 가는 상황에 관객은 보는 내내 웃음을 참을 수 없다.

일시 10월 30일(화)~11월 4일(일)  
평일 저녁 8시 / 토, 일요일 오후 3시, 6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전석 2만 5천원 문의 500-2000

## 시립극단 제63회 정기공연 오델로



고전 연극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천시립극단의 명작 극장이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로 돌아온다. <맥 베스>, <햄릿> 등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차례로 무대에 올린 인천시립극단은 이번 작품을 통해 인간 몰락의 낙차를 그려낸다. 셰익스피어의 작가적 창작력의 절정기에 산출된 <오델로>는 고구한 인물상인 오델로가 아내에 대한 의심과 스스로 만들어 낸 상상에 의해, 의심에 가득찬 의처증 환자로 떨어지기까지의 형편없이 무너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시 11월 23일(금)~12월 2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토요일 오후 4시, 7시 30분 / 일요일 오후 3시 / 월요일은 공연 없음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R석3만원, S석 2만 5천원, 학생석 1만원  
문의 500-2000

## 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고3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인천시립합창단이 힘든 학업과 입시의 스트레스를 견뎌낸 수험생을 위해 음악회를 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고전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알려줄 이번 공연은 수능시험이 끝나는 11월 22일에 열린다. 다이나믹한 공간 구성과 연주력으로 한국합창의 자존심이자 아시아 합창의 아

이콘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인천시립합창단이 마음의 위로와 활력을 불어넣는 연주를 들려준다.

일시 11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음악교육극 앤서니 브라운의<행복한 미술관>

유아 음악 감수성 개발 프로그램 '오디'가 창작한 음악교육극이다. 어린이들이 저마다 타고 태어나는 음악적 가능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음악수업이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을 원작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적시는 노래와 자연을 담은 신기한 악기소리로 관객과 함께하

일시 11월 16일(금)~17일(토)  
금요일 오후 4시 /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2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티켓 1만 5천원 문의 엔티켓 500-2000

## 커피콘서트X 여성 5인조 드럼캐트의 비트&드럼



그윽한 커피향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연, 커피콘서트! 11월에는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다이내믹한 사운드가 자랑인 드럼캐티 Sexy, Speed, Funny, Powerful, Wild 라는 다섯 가지의 테마로 잊지 못할 드럼 퍼포먼스를 펼친다. 단순한 타악 사운드가 아닌 일상에서 즐겨 듣는 락, 재즈, 테크노, 라틴 리듬 등을 드럼캐트 특유의 모던한 사운드로 만들어낸다. 화려한 테크닉과 초고속 스피드,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 등 남자는 매력으로 관객들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일시 11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1월~11월 제3회 '1318 Art Contest 중 · 고 미술동아리 초대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2월~ 8월 2012년 인천건축문화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사실
- 9월~15일 제48회 인천미술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사실
- 13일~20일 강상중 개인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16일~ 22일 인천대학교 시민대학 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사실
- 16일~22일 빛마중 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16일~22일 기획전-현대미술과 사진의 공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16일~22일 제13회 원목화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23일~29일 제4회 인천관광사진공모전 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사실
- 23일~29일 제5회 찬별 변호숙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23일~29일 제13회 파스텔동인 선우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23일~29일 제3회 제고사진동호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설사 없이 몰아붙이는 강렬함과 흥겨움... 원초적 섹시함과 우아함의 공존!  
춤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브로드웨이 댄스 뮤지컬 'Burn the Floor'가 인천을 찾는다.

글. 김윤경\_시 인터넷신문 I-view 편집위원



오래나를 표지판  
리뷰를 보았을 때  
불수 500그다

내면 깊숙이 숨겨왔던 춤에 대한 본능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빠른 템포 속 섹시한 움직임과 뜨거운 포옹... 정교하면서도 화려하게 펼쳐지는 다양한 댄스의 향연을 보고 있노라면 춤에 대한 문외한이라도 동화되지 않을 수 없다. 두 시간 내내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흡입력에 관객들은 그저 무방비 상태가 된다. 어느새 춤이 주는 유혹에 빠져들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 전 세계가 극찬한 댄스 블록버스터

'Burn the Floor'는 각종 댄스 선수권대회 출신의 세계 톱클래스 댄서들이 화려한 춤의 향연을 펼치면서 걸출한 가창력의 가수 두 명이 가세해 눈을 뗄 수 없는 무대를 만드는 댄스 뮤지컬이다. 댄서들은 심장을 뛰게 하는 음악과 함께 살사, 룸바, 탱고, 차차, 왈츠 등 가장 감각적이고 세련된 댄스 스타일의 총집합을 보여준다. 1997년 슈퍼스타 엘튼 존(Elton John)의 50회 생일 때 세계적인 프로듀서 할리 매드카프(Harley Medcalf)가 환상적인 댄스 퍼포먼스에 매료돼, 쇼 비즈니스계 제작진과 댄서들을 모아 '무대를 불

태우자(Burn the Floor)'를 테마로 댄스를 즐기는 공연을 만든 것이 이 작품의 탄생 배경이다. 이렇게 시작된 'Burn the Floor'는 세계 40개국 161개 도시에서 공연하면서 전미 흥행 2위, 2002년 일본 초연에서만 무려 8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일본 전체 흥행 1위, 오사카 공연에서는 티켓 오픈 5시간 만에 4만 5천석 전석이 매진되는 등 경이로운 흥행기록을 세웠다.

## 심장을 뛰게 하는 무대, 화려한 춤

노래와 춤, 그리고 스토리가 공존하는 댄스뮤지컬 'Burn the Floor'의 매력은 화려한 의상과 군무에 있다. 한 공연에 구찌, 베르사체, 돌체앤가바나, 모스키노의 디자이너들이 제작에 참여해 만든 고가의 의상 367벌과 액세서리, 194결레의 신발을 사용하며, 뮤지컬에서 가장 화려한 군무 장면만을 발췌하여 모아놓은 듯, 각 장면마다 무대와 의상, 강렬한 춤이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Burn the Floor' 프로덕션은 50명의 기술진과 '국제라틴챔피언십', '미국라틴챔피언십', '아시아태평양볼룸챔피언십' 등 총 100여

개의 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미국, 호주,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등의 세계 각국 출신의 댄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인천공연 'Burn the Floor'에는 미국과 호주의 인기 댄스버라이터티쇼 'So You Think You Can Dance'의 우승자 로비 크메토니(Robbie Kmetoni)와 자넷 만라라(Janette Manrara)를 포함해 젊고 새로운 댄서들이 대거 영입되어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키라의 'Objection Tango'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반으로 한 탱고, '조쉬그로반'의 음악 'Un Giorno'와 함께하는 왈츠, 안무가 제이슨 길킨슨(Jason Gilkinson)에 의해 라틴댄스 파트가 추가되면서 박진감 넘치는 무대와 혈기 넘치는 댄서들이 에너지를 끊임없이 쏟아낸다. 심장을 뛰게 하는 무대, 화려한 춤, 매력적인 댄서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번더플로어 Ballroom, Reinvented'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열정의 춤의 무대에서 떨쳐내 보자. 댄서들이 춤에 몰입하는 정열적인 모습에서 내 안의 새로운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브로드웨이 댄스뮤지컬 번더 플로어 (Burn the Floor)Ballroom, Reinvented

일시 11월 30일(금) 오후 8시 / 12월 1일(토) 오후3시, 7시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420-2736



# 쓰레기, 한 송이 예술로 피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어느 순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지구. 미안하다. 지구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하루하루 무심히 지나 온 일상이 만들어 낸 한 방울 한 방울이기에. 지금이라도 지구에게 덜 미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 쓰는 것이다.

디자이너 최환(28)은 며칠 걸려있다 버려지는 현수막을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구두로 옷으로 가방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현수막의 유해성분을 없애고 고유의 색상은 남기는 기술을 터득해 훗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이너로서의 욕심도 버리지 않는다. 그는 폐현수막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아름다움으로 향기롭게 승화시킨다. 여성을 도도한 고양이처럼 돋보이게 하는 우아하고 섬세한 곡선의 하이힐은, 버려진 쓰레기로 만들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단순히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만의 기술과 디자인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언젠가는 쓰레기로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환이 운영하는 ‘최고의 환한 미소’는 폐자재를 이용해 리사이클 환경교육을 하고 이를 통해 나오는 제품을 제3국에 보내는 단체다. 현재 친환경 패션쇼 및 다양한 기부행사를 하고 있으며, 훗날 아프리카에 재봉기술을 전하고 고아원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인도로 봉사활동을 간 것이 이 아름다운 도전의 시작됐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욕심 없이 행복한 사람들. 좋은 직장에 취직해 남보다 나은 미래를 영위하기 위해 ‘스펙’을 쌓으려 간, 내 자신이 불쌍해졌다. 베풀려 했던 그들에게서 오히려 큰 것을 얻었다.

“젊으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 솔직해지자’는 고민을 했고, 답을 얻었지요. 열정이 있으면 못 이룰 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자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재활용 디자이너의 작품은 서울 신사동과 인천의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www.ssorry.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수익금 일부가 아프리카에 고아원을 짓는 데 쓰이니, 여기에서 예쁜 구두를 하나 사면 아이들에게 지구에게 ‘최고의 환한 미소’를 번지게 할 수 있다.





인천세계장애대회 개최  
국내 첫 4개 국제행사 동시개최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국제학술행사인 인천세계장애대회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됐다. 인천세계장애대회(Incheon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Disability)는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APDPI)를 시작으로 아태장애포럼 컨퍼런스(APDF, RI(세계재활협회) 세계대회가 민간단체 주관으로 차례로 열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유엔 에스캡(UN ESCAP) 정부간 고위급 회의를 끝으로 대단위 막을 내리는 사상초유의 국제학술행사다. 4개 국제 대형 행사가 국내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00개 국가에서 3천명이 참석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내년 6월 착공

재원 조달이 어려워 지지부진했던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6월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2016년 8월 준공된다. 당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춰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재원 문제로 사업이 늦어졌다. 경제청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를 더해 총 200억원으로 내년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1단계 건물 옆에 연면적 6만1천371㎡,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으로 지어진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541

이번 행사는 정책담당자와 장애당사자, 장애 관련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과 국제적 공감대 형성의 발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가 세계 장애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회규모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해 진행해 온 사업인 제2차 아태지역 장애인 10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3차 아태지역 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이 수립·선언되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한 지원책에 나섰다. 먼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차 19대를 확보했고 전용콜택시 50대를 전담 배치했다. 그리고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기숙사 1천실과 연세대국제캠퍼스 기숙사 200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의 호텔 1천실을 행사 참가자 숙소로 확보했다. 대회기간 내내 70명의 인원을 투입해 장애인보조기구 임대·AS 센터 운영 등 행사 지원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문의 : 시 장애인복지과 ☎440-8297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추진

우리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방안과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여성가족연구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여성가족연구원은 기존 여성문화회관과 인천발전연구원 산하 여성정책센터를 통폐합한 기구로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 여성 평생교육과 문화진흥 사업,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연구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여성정책센터 사업비(4억원)를 포함한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달 23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문의 : 여성정책과 ☎440-2693



인천항 브랜드이미지 우수 디자인 인증

인천항만공사의 브랜드 이미지(BI·Brand Identity)가 정부로부터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인증’ 시각디자인 부문에서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공사는 1985년 굿디자인 인증제가 시작된 이래 항만 브랜드가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것은 전국 최초라고 덧붙였다. 인천항만공사의 BI는 지난 6월 공사 창립 7주년을 맞아 새롭게 고안된 것으로 인천(Incheon)과 항구(Port)의 영문 이니셜 ‘i’와 ‘p’를 결합, 미래로 향하는 푸른 바닷길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항만공사의 BI는 이미 서비스표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을 마치고 저작권·상표권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 상표등록을 앞두고 있다. 문의 : 해양항공정책과 ☎440-4821



UN기구 공금할 땐 견학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은 이미 2006년부터 국제도시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UN ESCAP, UN APOCT 등 국제기구 10곳을 유치해왔다.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지난 9월부터 ‘UN 및 국제기구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UN기구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UN직원들이 직접 기관소개와 사무실 투어를 진행한다. 또 격식 없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해 학생들이 국제기구를 이해하도록 돕고있다. 문의 : 인천국제교류센터 ☎546-876



백령도 전기공급 빨라진다

지난 10월 18일 오진균 백령면 백령도에 한국전력공사 백령지사가 문을 열었다. 백령지사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3개 섬의 전력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해 이들 섬 3곳의 주민은 백령지사에 바로 전기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이 전기 개통신청을 하려면 인천시내에 있는 한전 인천지역본부 방문하거나 2~3일 간격으로 섬을 방문해 신청서를 취합하는 한전의 협력업체를 거쳐야 했다. 한편 한전은 개소를 기념해 한전병원과 합동으로 주민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홀로 사는 노인 주거지의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문의 : 가축질병방역과 ☎440-5647



송도국제도시, 달러·유로화 모두 ‘OK’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음식점 등에서 달러와 유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외화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글로벌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송도국제도시외의 화통용 시범업소 40곳을 선정했다. 송도국제도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이 사업의 시범업소로 선정된 곳에는 인천경제청에서 제작한 외화통용 인증마크가 배부됐다. 이들 업소는 달러와 유로화 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외화통용 인증마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업소 등은 인천경제청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치면 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260-0792



<div data-bbox="210 148 640 413"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34 454 717 1062" data-label="Text"> <p><b>TOK첨단재료, 송도에 연구·생산시설 착공</b></p> <p>일본의 투자기업인 TOK첨단재료(주)가 지난달 10일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부지에서 반도체·LCD 생산용 첨단재료 연구소와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p> <p>티오케이첨단재료(주)사는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 분야에 서 세계적인 선두기업인 일본 TOK(90%)사와 삼성물산(10%)사간 의 합작법인으로 지난 8월 17일 (재)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 타워 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p> <p>TOK첨단재료(주)는 총 사업비 1천560억원을 외국인 직접투자 (FDI) 방식으로 투입해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지식기반 제조 용지 2만8천308㎡ 부지에 연면적 2만65㎡규모의 연구소와 생산시설 을 짓고 내년 10월부터 제품 생산과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p> <p>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시설 건립으로 2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연 간 1천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71</p> </div>	<div data-bbox="882 148 1312 413"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805 454 1391 1023" data-label="Text"> <p><b>시장개척단, 2교 시장서 690만불 수출 계약</b></p> <p>인천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아시아 지역을 순회 중인 '인천시 아시아 시장개척단(이하 시장개척단)'의 수출상담회 가 성황리에 열렸다.</p> <p>우리시는 시장개척단이 베트남 호찌민 수출상담회에서 13건 243 만달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53건 447만달러 등 아세 안(ASEAN) 2개국에서 69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담 실 적은 베트남에서 54건 301만달러, 말레이시아에선 70건 654만 달러를 기록했다.</p> <p>한편 시장개척단장인 김진영 시 정무부시장은 "이들 지역은 FTA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 유망지로 중소기업의 관심도 가 큰 곳"이라며 "중소기업의 활발한 동남아 진출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284</p> </div>
<div data-bbox="134 1174 717 1783" data-label="Text"> <p><b>IT융합기술 국제 콘퍼런스 개최</b></p> <p>IT 융합기술의 미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제9회 씨윿(CEWT) 국 제 콘퍼런스 &amp; 엑스포'가 이달 5일부터 6일 이틀간 송도국제도시 한국뉴욕주립대학캠퍼스에서 열린다.</p> <p>이번 행사는 지식경제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주 최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산하 첨단기술연구소 씨윿 의 한국 분원인 씨윿코리아 등이 주관한다.</p> <p>5일 개회식에서는 엘리스 루빈슈타인 뉴욕과학아카데미 회장, 신 동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6일에는 IT 학술발표, 신기술 전시회,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된다. 학술 발표 에는 아이작 피터버그 TEVA제약 이사, 이행우 보타메디그룹 회 장, 안남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이 참여한다.</p> <p>'씨윿 국제 콘퍼런스 &amp; 엑스포'는 2003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해 2009년 이후 뉴욕과 송도국제도시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다.</p> <p>문의 : 씨윿코리아 ☎626-1551</p> </div>	<div data-bbox="805 1174 1391 1783" data-label="Text"> <p><b>구제역·AI 특별 방역 상황실 운영</b></p> <p>우리시는 구제역 청정화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방지를 위해 내년 5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강도 높은 방 역대책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각 군·구는 구제역과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연락체계와 예찰 활동, 검사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게 된다.</p> <p>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에는 축협 공동방제단에서 소규모 축 산농가에 대한 소독방역 지원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군·구는 방역차량을 동원해 축산밀집지역과 주변 도로에 주 2~3회 이 상 방역활동을 지원한다. 또 철새도래지 강화도의 철새와 텃새 분 번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 사육 닭과 오리 등에 대한 정밀검사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항체 혈청검사를 하게 된다.</p> <p>현재 관내 사육 중인 가축은 소 2만4천461두, 돼지 4만661두, 우 제류 3천81두, 닭과 오리 126만6천419수다.</p> <p>문의 : 농업기술센터 ☎440-6916</p> </div>

## 7호선 인천 연장선 운행 시작

지난달 26일 부평구청역사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선 개 통식이 열렸다. 개통식에는 송영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7호선 총 연장 구간은 7호선 온수역에서 경기도 부천을 거쳐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10.2km다. 우리시에는 삼산체육관·굴포천·부평구청역의 3개 역(2.37km)을 설치하며, 부천에는 온수 역을 잇는 까치울·부천종합운동장·춘의·신중동·부천시청·상 동역의 6개 역이 들어선다. 연장 구간 개통으로 7호선 종점이 기존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이 되었다.

시는 연장선 개통으로 인천 서북부권 시민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인천교통공사 ☎451-2114

## 내년에 ‘서해 5도 방문의 해’ 추진

우리시가 2013년도를 ‘서해 5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지역 경제 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서해 5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에게 여객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해 5도에 1박 이상 체류하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 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시비와 군비를 50%씩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관광객이 4만5천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항만공항해양국 ☎440-4988

## 인천국제교류센터, 다문화 자녀 농구단 운영

(재)인천국제교류센터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가정의 자녀를 대상 으로 오는 20일부터 ABC 농구교실과 함께 글로벌 농구단 ‘Little Beast’를 운영한다.

글로벌 농구단은 인천시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 입국 자녀, 외 국인 가정 자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농구를 통해 이들 자녀의 자신감을 회복시 키고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코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년서포터즈와 1대 1 멘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농구단의 코치는 현재 ABC 농구교실 성인팀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팀원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 인천국제교류센터 ☎451-1735

## 잠진~무의도 연도교 건설 연내 착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구 잠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에 연내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청은 내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연말께 착공해 오는 2014 년 12월 공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올해 3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국비와 시비 각 130억원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경제청 관계자는 “연도교 건설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 도시 개발사업이 촉진되고 외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572



## 올해 농사는 풍년이랍니다~

옛날 탈곡기로 노랗게 익은 벼를 탈곡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탈곡기에 한쪽 발을 딱하니 올려놓고 탈곡하는 아이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하다.

지난달, 월미전통공원에서는 벼베기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올해는 탈곡기 체 험이 추가되어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논도 벼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도시 아이들에게 벼를 베고, 탈곡하고, 낱알을 만져보는 과정이 그저 신기하다.

도심 속의 작은 농촌 원미전통공원에서는 매년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433





인터뷰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

‘발로 뛰는 일꾼’으로 복지실현 앞장



“문화복지위원회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현장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뜻을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겠습니다.”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은 후반기 위원회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써 내년 인천에 2013 인천실내 무도대회, 인천체전 등 굵직한 체육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할 생각이다. 박 위원장은 2013 실내무도대회 뿐만 아니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도 의회차원에서 의원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결집시켜 국가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외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의정활동의 꽃은 상임위원인 만큼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펼친다. 위원 개인별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배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박 위원장은 의정활동에 있어 소통을 가장 중시하기에 시민과 만나 토론하고 교류하는 공청회, 토론회를 자주 열 생각이다. 또 ‘발로 뛰는 일꾼이 되자’는 초심을 잊지않고 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야심찬 각오다. 박 위원장은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필수요소이기에 복지에산을 늘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허인환 산업위원장

“송도영리병원 관심갖고 보겠다”

“시민의 눈만 보고 가겠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집행부에 적극 대처를 요구하고 현장위주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후반기의회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은 위원회의 중심 정책을 ‘송도영리병원’에 두고 있다.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 만큼 보다 깊은 고민을 거친 후 진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시의 워터프론트 사업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임을 피력한다. 허 위원장은 인천의 고용률과 지역경제에도 관심이 많다. 행복이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숨쉬는 인천만들기 차원에서 위원회가 앞장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지다. 허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연찬회, 간담회를 자주 개최해 전문지식을 높여나갈 생각이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의 과감한 제·개정 차원에서 공청회, 토론회도 자주 열겠다는 의지가 높다. 허 위원장은 시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정책개발로 시민간 반목과 갈등을 막고 시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원당초등학교 학생모의의회 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학생 모의의회를 지난 9월 19일 원당초등학교 학생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의회소개, 발표력 향상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스피치 특강, 모의의회(상임위, 본회의장)역할 연기, 설문서 작성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모의의회 처리 안건으로 학교 도서관 만화비치 안과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안, 시정 질문으로 자전거 통학 실시 안을 처리했다. 욕설사용금지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모의의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욕설 사용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바른말 사용을 위한 벌점제 등 제도 도입 필요성, 시정 질문에서는 학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구난화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통학 실시에 대한 질문, 학교 도서관 만화비치 안 및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안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이 있었다.

내 조사특위 검단, 하늘신도시 등 현지시찰

인천광역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부터 3일간에 걸쳐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루원시티 개발사업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형 관련사업 4개 사업장에 대해 현지 확인에 나섰다. 조사특위는 이번 현지확인에서 주민의 경제적 피해 및 불편 사항이 적극 해소되도록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조사특위의 주요 당부사항으로 ① 검단2지구의 토지보상을 2014~2017년까지 보상 완료토록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추진하고, ② 영종하늘도시 입주 활성화를 위하여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 방안 마련과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상가를 건설 임대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을 유치하여 아파트 입주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24일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증진과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역 사회 영역확장 및 자립생활 발전방안과 국내·외 사례와 인천지역의 지원현황을 비교하여 자립생활 환경 구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천지역 중증장애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생활 증진과 지원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증진과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부평시장서 시민불편사항 청취

인천광역시의회는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의정에 반영하고자 부평시장을 방문하여 상인회 대표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9월 20일 의장, 박승희·강병수·김기홍·박순남·신동수·이수영 의원 등으로 현장방문단을 구성하여 부평 강시장 상인회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흥종합상가, 부평종합시장, 부평강시장의 상인 대표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상인들은 재래시장의 어려운 점을 알렸다.



## 생활정보

### 고등야간학교,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배울 때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서러움은 평생 간다.” 인향초중고 등야간학교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드린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교육과정** : 초·중·고등과정 각각 1년 수료

**모집인원** : 남녀 00명(연령 제한 없음)

**모집마감** : 11월 5일(월)(선착순마감)

**수업시간** : 월~금요일(저녁 6시30분~9시25분)

**모집특전** : 입학금 및 수강료 무료

**모집처** : 중구 자유공원 서로 51번길1

자유공원 기상대 옆(구 송월동 공부방자리)

**문의전화** : 772-4061

**홈페이지** : www.inhyang.net

### 김민환 작가-유영 초대전

사진갤러리 배다리는 ‘배다리 초대전’을 연다. 11월은 김민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민환은 이번 전시를 통하여 40년을 사진가로 살면서 밀려오는 디지털의 변화에 순응하며 그 몸부림의 모습을 유영(幻影)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를 담아냈다.

**제목** : 幻影

**기간** : 11월 9일(금)~21(수) 목요일 휴관

**장소** : 사진공간 배다리(동구 금곡동 14-10)

**문의** : 010-5400-0897, 070-4142-089

### 이영욱교수의 세 번째 인문학 강좌

**강좌명** :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 -빌렘 플루서-

**일시** : 10월 22일~11월 19일, 총 5회

**시간** : 매주 월요일 7시~9시

**<강좌내용>**

1강 - 그림, 기술적 영상

2강 - 사진기, 사진 찍기의 동작

3강 - 사진술, 사진의 배포

4강 - 사진의 수용

5강 - 사진철학의 필요성

### ‘가을의 끝’ 11월 문화예술 행사

울목도서관은 11월 문화예술행사를 연다. 가을의 끝에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보자.

#### 1회 독서골든벨 대회

**제목** : 울목도서관 제1회 독서골든벨 대회

**일시** : 11월 17일(토) 14:00~16:00

**대상** : 초등학교생 4~6학년

**인원** : 80명(학교장 추천 및 개별접수)

**장소** : 울목도서관 별관 어린이실 2층

**선정도서**

번호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다림
2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한도훈	온누리
3	평화는 어디에서 오나요	구드룬 파우제방	웅진주니어
4	한밤에 깨어나는 도서관 귀서각	보린	문학동네
5	프린들 주세요	앤드루 클레먼츠	사계절

**문의** : 770-3809

#### 11월 클래식 인문학 특강

**제목** : 울목도서관 클래식 인문학

[20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행사주제** : Opera 三國志(오페라 삼국지)

**강사진** : 원상운(테너), 주가영(피아노), 장한섬(해설)

**운영일시** : 11월 3일(토)~24일(토) 오후 2시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문의** : 770-3804

**세부내용**

일 시	교육주제	비고
11월 3일(토) 오후 2시	오페라와 민족주의	청소년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사전 방문 및 전화 접수 (50명 내외)
11월 10일(토) 오후 2시	오페라와 제국주의	
11월 17일(토) 오후 2시	오페라와 전체주의	
11월 24일(토) 오후 2시	오페라와 평화주의	

#### 11월 인문학 특강

**행사명** : 인문학특강 「비움+채움」

**일시** : 11월 15일(목) 오후 7시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행사내용**

• 주제 : 成(성공) 누가 새로운 판을 만드느냐

• 강사 : 손철주 [학교재 편집주간]

〈다 그림이다〉〈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인생이 그림같다〉등 다수

**문의** : 770-3802

### 영종도서관 11월 문화행사

영종도서관은 11월 동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11월 문화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대상
전시	우보 민승기 멋진우리 우리 한글展	11월 1일(목)~30일(금)	1층 로비	전체
	한 눈에 반한 도서관, 앤지 그림	11월 1일(목)~30일(금)	꿈자람터 (1층 어린이실)	전체
	신비로운 문자, 한글도서관展	11월 1일(목)~30일(금)	어문학실	전체
상시	어린이독서퀴즈골든 Book을 올려라!	11월 1일(목)~30일(금)	꿈자람터 (1층 어린이실)	초등
	빛그림무지개*영상동화 읽어주기	11월 3일, 17일(토) 11:00-12:30		유아
	도서관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책나라 여행	매주 금 16:00-16:50		
	행복 전하는 동화배달부 찾아가는 동화 읽어주기	11월 15일(목) 15:00-17:00	인천보라매아동센터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
특별	작은 천재 다빈치 2기	11월 3일(토)~24일(토)	세미나실 2	초등
	영화로 만나는 직업의 세계	11월 10일, 24일(토)	소극장	중등
	영종도서관 2012 북스타트(BookStart)	11월 매주 금요일 10:00-14:00	꿈자람터 (1층 어린이실)	유아

**문의** : 745-6000

### 여성창업기업 모집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참신하고 유망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여성CEO에게 사무실을 지원하고자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소재지** :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모집기업** : 00개 기업

**모집기간** : ~11월 30(금)까지

**지원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 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사업 분야** : 제조, 신기술, R&D, 디자인 분야 등

• 제조업은 공해, 소음 등의 유발이 없고, 소규모 사무실에서도 창업준비가 적합한 경우에는 가능 입주 공간 및 입주조건

**입주공간** : 23㎡~66㎡(실별로 상이함)

**입주기간** : 최대 2년(1년단위로 재계약)

**예치금** : 1사당 3백만원

**관리비** : 실비 정산

**문의** : 260-3600~2

### “외국인과 일상을 함께 나눠요”

(재)인천국제교류센터는 지난달 13일~14일 1박2일간 관내 외국인 26명을 대상으로 인천가정에서 제3차 홈스테이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에 참가한 외국인은 영어 원어민 교사 13명과 인하대 유학생 13명이다. 영어어원인 교사는 9월부터 신규로 채용되어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된 교사로 미국, 캐나다, 영국, 남아공 출신이며, 인하대 유학생은 중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로 한국에 관심이 많다.

이들은 10월 13일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 마련한 ‘홈스테이 가족 대면식’에 참가했고 풍선 터트리기, ‘몸으로 말해요’, 제기차기 등 간단한 게임을 통해 인천가정과 친목을 다지고 1박2일간 홈스테이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인천가정과 함께 월미도, 송도 등 인천의 명소를 견학하고, 전통시장에 둘러 장을 보고 집에서 김밥, 부침개 등 한국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재)인천국제교류센터는 지난 9월에도 영어 영어민교사와 일본대학생을 대상으로 홈스테이 가정 체험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을 찾는 외국인에게 홈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451-1732

### 성인 남녀 중·고등학생 모집

남인천중·고등학교는 가슴깊이 묻어 둔 배움의 한을 풀어 준다. 배움을 포기하지 말자. 자신감과 용기만 가지면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 모집인원	5학급 (225명)	3학급 (135명)
2. 수업연한	2년(1년 3학기)	2년(1년 3학기)
3. 입학자격	①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②교과부 지정 성인문해학교 초등학교인정 과정 이수자	중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4. 구비서류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검정고시합격증 원본) 4. 초등학교인정 성인문해학교 이수증 원본 5. 전행료 3,000원 6. 현장학습비 60,000원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검정고시합격증 원본) 4. 전행료 3,000원 5. 교과서 대금 65,000원
5. 원서접수	2012년 10. 4.(목)부터 ~ 선착순 접수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토, 일, 공휴일은 접수안함)	

**문의** : 863~9941



## 제46기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회관은 46기 겨울학기 회원모집 한다. 이번 학기에도 부담 없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무로특별기획강좌'는 물론 중구정신보건센터와 함께하는 전문인 특강 등 많은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다.

**강좌기간** : 12월 1일~2013년 2월 22일(3개월) \*개강 후 중도수강 가능

**접수기간** : 10월 29일~12월 1일

**장소** : 미추홀문화회관 – (구) 인천여고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문의전화** : 765-0220, 0250 / 홈페이지 www.mchart.co.kr

###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 (3개월 과정)

어린이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오텔과 핸드벨(오텔전문강사 박명옥)</li><li>• 어린이 한자교실 초급반(한자자격검정 전문강사 최종영)</li></ul></div>
성 인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서예초급(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최종영)</li><li>• 주부 연극 &amp; 뮤지컬(인천시립대 연기예술학과 강사 임기원)</li><li>•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성인발레(발레전문강사 이소연)</li><li>• 드로잉 기초부터 완성(서양화가 라선)</li><li>•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인천대 객원교수 김준기)</li><li>• 디지털카메라&amp;포토샵(전 인천사진협회장 조만년)</li><li>• 한국무용(금빛평생교육자원봉사 박영숙)</li><li>• 솔림미즈발리댄스(발리댄스 전문강사 공병순)</li><li>• 성인영어회화 초급반(영어회화전문강사 김나연)</li><li>• 성악교실(성악가 조외숙)</li><li>• 하루의 마무리, 눈어와 도덕경으로 세상읽기(인천대 국문과</li></ul></div>

### 신나고 활기찬 야외수업

**강좌명** : 어린이 골프교실

**대상** : 초등학교생 이상

**레슨비** : 3개월 150,000원

**일시** : 화/목/토(주3회) 08:00~21:00사이 개별레슨

**문의** : 765-0250

### 전문인과 함께 하는 무료특강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ADHD**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11일(수) 10:30~12:00

**접수비** : 1천원

### 우울증 예방과 조치법

중구정신보건센터 이상은

11월 28일(수) 10:30~12:00

**접수비** : 1천원

**문의** : 765-0220

### 정규강좌 안내

공예 / 미술 / 서예 / 무용 / 음악 / 어학 / 교양 / 건강 / 스포츠 창의력  
계발 / 학습 계발 / 임신부 / 전문인 양성 및 자격증반 / 창업반 / 미용 / 어린이요리

## 청소년자활작업장 ‘카페 잎 3호점’ 오픈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취약청소년 원스톱(보호에서 취업까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인천광역시 청소년자활작업장 3호점인 ‘카페립 로스팅’을 지난달 25일 오픈했다.

### 카페립 운영 성과

• 2010년 3월 ‘카페립 1호점, 2010년 10월 ‘카페립 2호점 개소를 통하여 바리스타 기능교육과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총 34명의 청소년이 훈련을 수료했다. 바리스타 및 파티쉐 업계에 취업한 청소년이 9명, 그 외 타 업종에 취업한 청소년 2명으로 훈련인원 대비 33%의 청소년이 자활작업장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 사업내용

• 지난달부터 운영하는 ‘카페립 로스팅’은 1호점에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매니저의 지도를 통해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로스팅 기술을 배우고 직접 일을 맡아한다. 또 멕시코 공정무역 및 브라질,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등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스페셜티 티 생두를 로스팅하여 온 ·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문 의** : 773-1319, www.cafeleaf.or.kr

## 근현대사 생활사 교육프로그램 실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근현대사 생활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

### 2012년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근현대 생활사 교육프로그램

**장소** :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교육실

**대상** : 18세 이상 성인

**수강료** : 무료 (재료비 10,000원 별도)

**접수** : 박물관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www.icdonggu.go.kr/museum

• 규방공예반 – 사각쿠션, 원형쿠션 만들기  
– 교육일 : 11월 6, 13, 20일(화요일) 총3회, 오전10시

• 북아트반 – 카드지갑, 액자, 모빌 만들기  
– 교육일 : 11월 7, 14, 21(수요일) 총3회, 오전10시

• 천연화장품반 – 천연세제,화장품,양초 만들기  
– 교육일 : 11월 8, 15, 22(목요일) 총3회, 오전10시

## 미추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미추홀도서관은 다채로운 전시, 공연, 강좌가 가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FOCUS!!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start 한 도시 한 책 운동」 최나미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11월 1일(목) 18:30~20:30	신세계백화점 문화홀(5층)	전체	440-6662~4
동유럽 문학기행	11월 매주 목요일 19:00~20:30	세미나실 I (3층)	전체	440-6662~4
백종환 작가전	11월 1일(목)~18일(일)	미추홀터 전시실(1층)	전체	440-6643

### ALWAYS!!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시민건강강좌 (주제 : 피부과)		11월 10(월)토 10:30~11:30	세미나실 I (3층)	전체	440-6662~4
북스타트 아기 천사들의		매주 목요일	꿈나무터 (1층)	인천시 2012년 출생영아, 만18개월 영유아 및 부모	440-6647~8
목(木)소리		11:00(1회) 15:00(2회)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일 14:00	강당(지하1층)	-	440-6641~2
꿈나무터 문화교실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꿈나무터 문화교실 (1층)	4세~초등 5학년	440-6647~8
	꿈나무터 견학	매주 화·목 10:30	꿈나무터 문화교실 (1층)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세상	매주 목요일 10:40	꿈나무터 문화교실 (1층)	미취학 아동	
책마중(관외예약 대출·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반납	예술회관(지하2층) 미추홀도서관(1층입구)	미추홀도서관회원 (타관회원-등록 후 이용가능)	440-6634~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ichuhall.go.kr)를 참고하세요.

## 미추홀도서관 전시실 기획전시 공모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에게 우수한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 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도 미추홀도서관 전시실(미추홀터) 기획전시를 공개모집한다.

**모집부문** : 회화, 조각, 사진, 공예 등 조형예술 분야

**모집횟수** : 총6회

**지원사항** : 무료대관, 홍보물 제작 지원(30만원 범위), 행정적 지원

**신청자격** : 예술 및 창작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접수기간** : 10월 22일(월)~11월 8일(목) 18:00까지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미추홀터)

**문의** : 440-6643

## ‘주소찾아’ 앱(APP) 이벤트 신청

도로명주소의 본격적인 사용에 대비하여 ‘주소찾아’ 앱(APP)을 이용한 도로명주소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시 자기집 건물번호를 찍어 전송하면 추첨하여 경품을 드려니 많은 참여 바란다.

### 응모방법

• 기간 : 10월 19일~11월 11일(3주간)

• 대상 : 전 국민

• 홍보방법 : 네이버 배너광고, 도로명주소 · 행정안전부 · 지역정보개발원 ·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 홈페이지 및 네이버 게시물 팝업창과 베너(안) 붙임 참조

• 응모방법 : ‘주소찾아(APP)’을 이용(다운)하여 자기집 건물번호를 찍어 상단 이메일 주소로 메일 전송

• 경품 : 1위-1명(아이패드, 80만원), 2위-5명(차량용 블랙박스, 대당 20만원), 3위-54명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  
※ 경품은 앱 제작사(SK C&C)가 도로명주소 활용 · 활성화를 위해 제공

### 결과 발표

• 추첨일 : 11월 14일(수)

• 추첨결과 :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 공지 및 핸드폰 문자 전송

• 선물전달 : 1, 2위는 초청 전달(의견수렴), 3위는 우송

**문의** : 440-4593

## 인천! 둘레길 따라 걷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둘레길 추진단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s자 녹지축을 따라 조성한 둘레길을 걸으며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2012 인천 길의 날 대회’를 개최한다. 둘레길 종주 및 시민걷기 참가자를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

### 인천둘레길 종주

**일시** : 11월 9일(금) ~10일(토) 1박2일

**장소** : 1코스~7코스(계양산림욕장 ~ 소래광장)

**참여인원** : 종주단 50명 내외로 구성(단장 : 박흥렬 사무처장)

**참가비** : 1인 1만원(보험 가입 없음)

### 인천둘레길 시민걷기

**일시** : 11월 10일(토) 09:00 ~ 12:30

**장소** : 5코스~7코스(인천광역시 청소년 수련관 ~ 소래광장)

**참여인원** : 시민 100명 내외로 구성

**참가비** : 1인 2천원(보험 가입 없음)

**문의** : 433-2122, iagenda@hanmail.net

※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신청은 11월 6일(화)까지 받습니다.



‘아이와 통(통)하는 대화법’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가 공동으로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들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아 이와 통(통)하는 대화법’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일시 : 11월 13일(화) 10:00~12:00

장소 : 서구 심곡동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지하 강당

대상 : 서구지역주민 누구나(학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등) 100명

강의내용

- 우리 아이 올바르게 이해하기
- 우리 아이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 구체적인 대화방법의 예시 및 적용방법

강사 : 김미재(참사랑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문의 : 560-5006, 569-1545

인천의 과거 · 현재 · 미래도시 교육

인천도시공사는 컴팩트마트시티(인천도시계획관) 초중교과 연계교육프로그램 ‘인천의 과거 · 현재 · 미래도시’를 10월 13일, 20일, 11월 10일, 17일에 4회 시범운영 실시한다.

교육내용

- 초등학교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사회, 미술, 국어, 과학 등의 교과서를 분석 고장, 자연환경, 환경과 건축을 ‘인천의 환경에 어울리는 건축물설계를 주제’로 진행
- 중학교는 사회교과서를 분석하여, 도시와 도시의 성장, 산업화와 도시 발달, 도시 내의 여러 지역을 학습키워드로 ‘새로운 인천, 미래 도시설계’를 주제로 활동지를 활용한 전시관 체험감상수업, 교육실 시청각교육, 창작과 발표수업 순으로 약100분간 각각 진행

참가방법

- 초중교과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참가비 무료이며, 선착순 기간내 사전전화 접수로 등록가능. 단, 인천권내 다양한 초, 중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단체접수는 받지않으며, 사전등록은 학부모의 연락처와 대상자의 학교명, 학년, 성명 순으로 접수가능

교육일정

- 11월 24일(토) 짜릿한 인생역전을 꿈꾸는 ‘장화신은 고양이’, 12월 22일(토) 어린이들이 흥미진진하게 감상할 수 있는 ‘쿵푸팬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다.

문 의 : 260-5000

고3청소년 문화산책 교실

인천시설관리공단은 ‘고3청소년을 위한 문화산책’ 교실을 연다. 참여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일자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신청 학교	-미 신청-	부평고 420명(확정)	송덕여고 400명(확정)	인 제 고 400명(확정)	신명여고 380명(확정)
프로그램 내용	〈힐링문화티켓〉 영화-건축학 개론	〈힐링문화티켓〉 영화-맨인블랙3	〈예비대학생활TP〉 강사(이하늘) MC(유창근) 비보이(O.F Crew)	〈예비대학생활TP〉 강사(이하늘) MC(유창근) 비보이(O.F Crew)	〈힐링문화티켓〉 영화-어벤저스
일자	11/19(월)	11/20(화)	11/21(수)	11/22(목)	11/23(금)
신청 학교	동인천고 450명(확정)		가좌고370명(확정)	명신여고 367명(확정)	신현고 367명(확정)
프로그램 내용	〈예비대학생활TP〉 강사(이하늘) MC(유창근) 비보이(O.F Crew)	-휴 강-	〈이미지메이킹〉 강사(김현정) MC(유창근) 신인Rap그룹(Spolarz)	〈이미지메이킹〉 강사(김현정) MC(유창근) 신인Rap그룹(Spolarz)	〈힐링문화티켓〉 영화-연가시
일자	11/26(월)	11/27(화)			
신청학교		연수여고430명(확정)			
프로그램 내용	-자체행사-	〈이미지메이킹〉 강사(김현정) MC(유창근) 신인Rap그룹(Spolarz)			

문의 : 456-2100

수인선 연수 · 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시, 연수구는 수인선 연수 · 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차 민간제안을 공모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바란다.

공모명 : 수인선 연수 · 원인재 역세권개발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

공모대상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9번지 일원

공모분야 : 관련법령 및 규정, 공모조건에 적합한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국유재산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 공단법 등
- 관련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자산개발및운영규정, 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 인천광역시청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조례

공모참가 자격

-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 평가한 다음의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제안서 접수마감 : 12월 18일(수) 16시까지

- 제출서류 : 공모 제안서 15부, 부속서류(필요시), CD 3장

- 제안서 접수 : 신청자가 직접방문

- 접수장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1층 고객봉사실

문의 : 440-4445

www.incheon2014ag.org



제4회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  
4th Asian Indoor & Martial Arts Games Incheon 2013



# 자원봉사자 모집



## 2013 인천실내 · 무도 아시아경기대회 개요

- 대회기간 : 2013. 6. 29 ~ 7. 6 (8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일원, 경기도(안양, 안산)
- 경기종목 : 9개 종목  
(당구, 볼링, 체스 · 바둑 & e스포츠, 댄스스포츠, 풋살, 카바디, 킥복싱 & 무에이, 크라쉬, 25m 슛코스 수영)

### 1. 모집개요 및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12. 9. 1 ~ 11. 30  
- 방문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vl2013@incheon2014ag.org)  
- 인터넷(홈페이지) : www.aimag2013.org
- 모집인원 : 2,700명  
- 통번역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의전  
- 경기지원, 사무지원, 행사지원, 일반안내, 후생, 교통정리, 환경정리, 의무, 안전통제, 정보통신, 미디어, 운전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내 · 외국인, 대학 · 기업체 등 단체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소통 가능자)  
- 대회기간 8일 이상 참여 가능한 자

### 2. 신청서 교부처

- 조직위 자원봉사 모집센터, 인천소재 대학 학사관리부서
- 시 · 군 · 구 민원실 및 자원봉사센터

### 3. 선발 및 교육



### 4. 후생지원

-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유니폼 및 참여증서 제공, 상해보험가입 등



기타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참고

안내전화  
자원봉사자 모집센터  
032) 458-2618

홈페이지  
http://www.aimag2013.org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이달의 서평



###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 오우아 | 2012

대한민국 멘토 열풍을 불러온 에세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가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청춘의 불안을 지나 세상 속 뜨거운 별을 맨몸으로 건디며 흔들리고 있는 어른아이들, 어른이라 불리는 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당신은 어른입니까?”라는 질문의 무게에 관해 이야기 하는 책이다. 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가 겨우 어른이 되기를 시작할 때의 흔들림, 사회초년생들이 힘겨워하는 문제와 딜레마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함께 고민한다.



### 템테이션

더글라스 케네디 | 밝은세상 | 2012

무명의 시나리오 작가인 데이비드 아미티지. 어느 날 시트콤 대본 ‘셀링 유’가 텔레비전 방송국에 팔리면서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셀링 유’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데이비드는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작가로 떠오른다. 성공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에게 억만장자 필립 플렉이 영화 시나리오 공동 작업을 제안한다. 자존심인지, 돈인지, 데이비드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데... 이 소설은 한 시나리오 작가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통해 인생에서 끝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김연수 | 자음과모음 | 2012

2011년 여름부터 2012년 여름까지 계간 ‘자음과모음’과 중국 격월간 ‘소설계’에 <희재>라는 제목으로 동시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연재 종료 후 작가의 수정을 거쳐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최종 완성되었으며, EBS ‘라디오 연재소설’에서 작품 전편이 낭독되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 여성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와서 겪는 사건들을 그리고 있다.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7(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유흥준 | 창비 | 2012

1990년대 초중반 전국적인 답사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인문서 최초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저자 유흥준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 사람 이야기를 담은 일곱 번째 책을 들고 돌아왔다. 지금까지 ‘답사기’와 달리 이번 7권에서는 한 권을 온전히 ‘제주도’에 할애하여 제주의 문화, 역사, 사람 이야기를 전에 없이 풍성하고도 깊이 있게 소개한다. 제주의 곳곳에 숨어 있는 에피소드를 따라가며 지금까지 알려진 제주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제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	이토 우지다카	21세기북스	속도에서 깊이로 이끄는 슬로 리딩의 힘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오우아	흔들리며 어른의 문턱에 선 이들에게 보내는 인생 멘토링
사랑하지말자	김용옥	통나무	우리의 역사적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안내
왜 우리는 혼자가 되었나	이정국, 임지선 외	레디셋고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현상을 분석
위대한 과학자들	앤드류로빈슨	이창우	발견과 창조로 인류의 오늘을 만든 43인의 거인
1일 1식	나구모 요시노리	위즈덤하우스	내 몸을 살리는 52일 공복 프로젝트
감독이란 무엇인가	김성근, 김인식 외	새임	한국 야구 최고 감독들의 야구 이야기
골프도 독학이 된다	김현	양문	골프레슨을 받지 않고도 혼자서 배울 수 있는 비법 소개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김연수	자음과모음	희망은 날개 달린 것 심연을 건너가는 것
템테이션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적도에 묻히다	우쓰미 아이코, 무라키 요시노리	역사비평사	독립영웅 혹은 전범이 된 조선인들 이야기
나의문화유산답사기.7	유흥준	창비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 사람 이야기를 소개

##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 박 미 산 (본명: 박명옥)



#### 시인

1954년 인천 출생

방송대학교 국어국문과 졸업,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6년 계간 <유심> 시부문에 당선

200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너와집’으로 시부문 당선

#### 대표저서

루낭의 지도(2008)



##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본 정보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구인자료로, 초기에 채용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032) 458-7488,7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합동폐차산업	경리사무원	2명	1년 이상	고졸이상	폐차장폐차인수증발급업무, 폐차부품 판매업무 08시30분~18시(주 5일)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6동 8-441	월급 110만원
인탑코리아㈜	경리사무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경리업무 및 사무, 전표관리 09시~18시(주 5일 근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223	연 1,600만원 (급여협의)
오렌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안내접수사무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운전면허전문학원 일반사무업무, 전화응대, 접수업무 09~19(평일)/09~15(토) 주6일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1-13	월 110만원
주식회사 한텔	전자제품 생산관리자	2명	5년 이상	고졸이상	PCB생산라인 휴대폰케이스 생산관리업무 (전자공학) 09시~18시(주 6일 근무)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68-1	월급 150만원 (급여협의)
(주)와이비엠시스	보조교사 및 기타교사	3명	관계없음	전문대졸 이상	회원 학습관리 및 교육컨설팅 10시~19시(주 5일 근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865-34 인재빌딩 4층	월급 150만원
(주)우진플라임	해외영업원(영어, 일어)	2명	5년 이상	대졸 이상	중공업, 중전기 등 해외영업업무 영어능통, 일어가능자 08시30분~17시30분(토요격주)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3-3	연 3,400만원 (급여협의)
(주)디자인크럽	하역 및 적재단순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물류창고에서 가구상하차업무 08시30분~18시(토요격주휴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549	연 1,900만원
삼성 동인천서비스㈜	핸드폰 수리 엔지니어	5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동인천 삼성 애니콜서비스 수리엔지니어 업무(전자전자공자) 09시~18시/09~13(주 6일근무)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34-5	월급 160만원 (협의 가능)
이안컴퍼니	의류 미싱사	6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속옷 미싱업무, 초보지원가능 09시~18시30분(주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1동 970-32 3층	연 1,200만원 (급여협의)
위드미요양병원	단체급식조리사(병원)	2명	1년 이상	학력무관	요양원 병원 조리업무, 조리사(음식)자격증 필수임, 06시30분~18시30분(주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2-1 칼라오페빌딩 10층	월급 145만원
(주)엠에스비상사	CNC,MCT 조작원	2명	2년 이상	학력무관	브레이크 CNC, MCT, 건드릴(위 에 중 1~2가지 가능자) 08시30분~17시30분(주5일근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0-3 123B-4L	연 3,000만원 (급여 협의)
영신기업	알곤용접원	2명	5년 이상	학력무관	알곤용접(티그용접원) 08시30분~18시(토요격주휴무)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29-4	월 200만원
㈜아모스아인스가구	가구생산직 보조원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사무용가구 제작, 조립,업무, 포장업무 08시~17시(주 5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5번지	시급 4,580원
영원산업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도장(painting) 생산, 포장업무 08시~17시(주6일)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2,3동 683번지	시급 5,500원
(주)아세아볼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3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전자제품 선별 및 조작업무 초보자 지원 가능 08시30~19시(주 5일 근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89번길 25	월급 165만원
㈜ToTech	자동차조립원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자동차부품 조립업무, 상여금 400%지급 주야 2교대 근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531-1	시급 4,600원
(주)피자코리아	식품단순조립원	10명	2년 이상	고졸이상	현장 시설물 보안 및 고객응대 08시~18시(주5일)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6동 8-441	월급 130만원
주식회사프로켓	식품생산원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제품(포장육, 식육가공품) 생산 08시30분~18시(토요격주휴무)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96-11	월 115만원
스카이주유소	주유소 주유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주유소 차량 연료 주유업무 05시~13시/13시~23시(中 택)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가좌동) 630	시급 4,600원
㈜대대푸드원 (장애인만 채용)	입출고물류원	2명	2년 이상	학력무관	제품 입고고 및 현장물류종사 08시30분~18시30분/주 6일근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6-11	월급 130만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58-7470 ~ 7479, 7488, 7494(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50m 전방)





글. 임태형\_한림안과병원 진료과장

## 뚫어요, 눈물길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다. 이런 환절기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 몸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눈에도 온도, 습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가을 겨울이 되면 눈물 흘림증 환자를 자주 만난다. 찬공기가 자극이 되면서 눈물이 더 많이 나오는 데, 심해지면 이러한 자극이 없는 실내에서도 눈물이 흐르거나 고이게 된다.

눈물은 눈물샘과 결막에 있는 보조 눈물샘에 의해 만들어진 다. 눈물은 우리의 눈을 보호하고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는 데 이렇게 분비된 눈물은 눈물길을 통해 콧속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눈물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하수도 역할을 하는 눈물길이 좁아져서 배출되지 않으면 눈물이 넘쳐흐를 수 있다. 이처럼 눈물흘림의 원인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너무 많이 생기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다.

눈물이 너무 많이 생겨서 눈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경우는 안구 건조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반사적 눈물흘림). 평상시 눈을 항상 적셔주는 눈물이 부족하거나 빨리 말라서 없어지는 경우 건조한 환경이나 찬바람 등의 자극을 받게 되면 눈물이 이러한 자극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눈의 표면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눈에 먼지나 티가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 몸은 눈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반사적으로 눈물샘에서 눈물을 많이 만들어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눈물이 많아져 눈물이 넘쳐흐르게 된다. 물론 안구건조증이 좀더 심해지면 TV나 책을 잠시 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자극이 생겨 눈물이 나고 더 진

행하면 눈물샘에도 문제가 생겨 더 이상 눈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심한 안구건조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경우라면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실내의 습도는 적절하게 조절하는 등 눈에 자극이 될 만한 요인을 줄이고 인공눈물, 안구건조증 치료제 등을 사용하여 눈에 과도한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다른 경우는 눈물을 배출하는 눈물길(하수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다. 이 경우는 4,5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조직들이 늘어나서 눈물길의 입구를 막거나 눈물길 자체가 좁아지거나 막혀있는 상태다. 이런 경우가 지속되어 심해지면 눈물이 단순히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고인 물이 썩게 되듯이 장시간 고여 있는 눈물 때문에 눈물주머니 염증이 생겨 눈곱이 끼거나 눈 안쪽 피부가 붓고 아픈 증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증상이 생활에 불편함을 일으킬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하다. 일단 눈물길의 입구가 다른 조직에 의해 막혀있거나 좁아졌다면 간단한 시술로 눈물구멍을 넓혀주면 된다. 눈물길 자체가 좁아졌다면 실리콘 관을 집어넣어 넓혀주어야 한다. 눈물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다면 이 막힌 길을 뚫어주거나 새로운 눈물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날이 추워지면서 눈물이 고이는 증상은 누구에게나 눈을 많이 사용한 후에는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되거나 흘러내릴 정도라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 시원합니다

GCF 사무국이 인천으로 유치돼서 시원합니다. 송도센트럴파크 수로에 있는 오줌싸개 동상들입니다. 아마 이사회 임원들도 Lotte Tower에 가면서 이 꼬마 녀석들을 보았겠죠.

차지원\_구월동



### '망둥이 따라 해봐요 이렇게~'

영종도 해변에 캠핑갔을 때입니다. 낚시하겠다고 새벽부터 나선 우리 아들, 드디어 월척(?)을 낚았네요. 그런데 표정이... 귀여운 망둥이 같아요.

노현우\_연수구 동춘동



### 책, 늘 가까이

요즘 공원에 가면 이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일부러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책을 읽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좋은 책도 많아요. 가끔 갑자기 소나기 만나면 피하기도 좋아요.

송정순\_남구 도화동



### 잊지 말길, 연평도의 그날

2010년 11월 연평도. 더 이상 우리 땅에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 연평도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섬을 가슴에 새겨보았습니다.

김명수\_연수구 송도동



### 도시에서 흐르는 농경 DNA

이제 이 송의동 골목에도 수확의 계절을 만났습니다. 이 함지박 채소는 '취미' 정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살지만 농경 DNA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최수현\_남동구 간석동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1매)해 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2매, 장원은 4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1 폐막식 입장 2 여자일반 축구 현대제철 경기 3 인성여고 농구 결승 4 대건고 테니스 5 대회기 인수 6 카누 K-4 남일반 결승

# 이제, ‘Incheon’이다



인천시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지난달 7일 동안 달구벌 대구를 뜨겁게 달군 제93회 전국체육대회의 성화는 꺼지고 내년도 개최지인 인천 품에 대회기가 안겼다. 김진영 시 정부부시장은 지난달 17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전국체전 폐막식에서 대회기를 인수받고, 14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인천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제94회 인천전국체전은 내년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문학월드컵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지역 내 64개 경기장에서 고등·대학·일반부별로 선수 2만2천여 명과 임원 8천여 명 등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46개 종목이 펼쳐진다. 제94회 인천전국체전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리허설 성격도 띠고 있다.

(사진, 안영우\_자유사진가)





## 인천스타일, 경인방송

글. 원기범\_ 경인방송 아나운서\_‘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진행

“경인방송 속보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민 모두의 성원이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10월 20일, GCF 이사회 표결 결과 사무국이 송도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희 경인방송에서는 그 소식을 긴급 속보로 방송을 통해 알렸습니다. 이어서 미리 제작해두었던 ‘GCF 송도 유치 축하 스폿’을 당일 오후부터 바로 송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2일 (월)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월~금 07:00~09:00)’에서GCF 사무국 송도 유치 기념 특별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GCF에 대한 소개, 송도 유치 과정, 유치 기대효과 등의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 인천시, 시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경인방송에서는 올 봄, 인천이 우리나라의 유치 추진 도시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이 이야기를 소상히 다뤄왔고 송영길 시장과 시의 실무 책임자 등과 인터뷰를 통해 GCF 사무국 유치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 인천시민의 성원 필요성 등을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그것이 인천 지역 언론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22일의 특별방송에서 한 청취자가 방송국으로 보내온 문자입니다. ‘인천정신 경인방송! GCF 사무국 인천 유치에 지역 언론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인천이 자랑스럽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문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부터 방송 준비를 하는 고단함 정도는 봄눈 녹듯이 깨끗이 사라지게 할 정도로 힘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경인방송은 이제 열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한 때 폐업 위기를 극복

하고 방송을 정상화시킨 경인방송인지라 남다른 개국 15주년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경인방송은 1997년 인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TV방송 첫 전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후 박찬호 메이저리그 독점중계, 경찰 24시, 리얼스토리 실재상황, 게임 스페셜 등 국내 방송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으로 탄탄대로 걷는 듯 했지만 2004년 TV정파 조치를 당했습니다. 300억 원 대에 달하는 부채와 자본잠식, 극심한 노사분규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유일의 방송을 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2005년 방송위원회로부터 라디오 재 허가를 받아 방송 정상화를 위한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4년 만에 법정관리 조기 졸업(2010년 12월)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지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도 방송에 투영되었습니다. 인천 유일의 지상파 방송사로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담은 지역밀착 방송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폐업의 위기를 겪고 나서야 ‘지역에서 꼭 필요한 방송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언급했던 한 청취자의 글이 저희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다가왔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방송의 불모지였던 인천에 인천사람들과 더불어 인천의 소식을 전하며 인천의 목소리를 내고 자긍심을 키워왔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9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소중한 ‘우리’ 인천의 방송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저희 경인방송은 열 다섯 소년의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또 뛸 것입니다.



## 책빵, 미안해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60년 남짓 된 동인천 대한서림 자리에 빵집이 들어섰습니다.

1, 2층을 내주고 이제 3, 4층만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책방이 ‘책빵’이 되었습니다.

인천사람들에게는 책방 하나 빈 것 이상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서울사람들조차 인천시청이 어디 있는 줄은 몰라도 대한서림은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길 건너, 거의 같은 세월 함께 해 온 동인서점이 무척 쓸쓸해 보입니다.

책과 빵, 물론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양식이지만

서점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참 미안합니다.

글 · 사진 유동현\_본지면집장